

정부 입김 세진 ‘분심위’... “결국 거수기 전략”

〈분양가심사위원회〉

국토부 산하 ‘HUG·한국감정원’ 공공위원 참여 전문성 갖췄지만 ‘高분양가 규제 강화’에 무게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 수준을 결정할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위원으로 추가되면서 분양가 책정에 정부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정부 산하기관이 분심위 위원으로 참여하면 시장 수요(수요와 공급) 상황과 주변 시세 등을 토대로 분양가를 결정하기보다는 “비싼 분양가는 제재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분심위 구성원에 HUG와 한국감정원을 공공위원으로 추가했다. HUG는 분양보증 발급 업무를 통해 고분양가를 제재하고 있고, 감정원은 공시가격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분심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위원 구성에 변화를 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에 속한 이들 기관이 분심위에 참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심위가 정부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HUG와 감정원이 주변 집값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

기보다 “분양가가 비싸면 안 된다”는 정부의 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HUG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사실상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해 왔다. 주택사업자가 분양사업을 추진하려면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HUG는 해당 사업자의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하면 보증서 발급을 반려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분심위에서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HUG의 참여로 기존보다 더 까다로워진 분양가 책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정부의 취지에만 맞게 심의 의결하는 ‘거수기’ 회의체로 전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분양가 분심위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 “HUG는 고분양가 관리자 입장보다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관점을 제시한다는 자세로 회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위풍당당 신형 호위함 ‘서울함’

11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해군의 신형 호위함 ‘서울함’ 진수식이 열렸다.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에 2800t급인 서울함은 5인치 함포와 근접방어무기체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등으로 무장했으며, 해상작전 헬기 1대도 실을 수 있다.
연합뉴스

삼성 갤럭시 ‘中 완판 행진’... “화웨이 나와라”

‘2초 매진’ 1차 이어 2차도 흥행 ‘메이트X’ 보다 가격·내구성 강점 플더블폰 경쟁서 유리한 고지 선점

삼성전자 플더블폰 ‘갤럭시 폴드<사진>’가 중국에서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1차 판매에 이어 2차 판매에서도 완판을 기록했다. 화웨이의 플더블폰 ‘메이트X’가 이번 주 출시될 예정이지만, 삼성전자는 내구성과 가격을 앞세워 화웨이를 압도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11일 소셜미디어 웨이보 계정을 통해 갤럭시 폴드의 2차 판매가 완판됐

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8시에 갤럭시 폴드를 한 차례 더 판매했다. 삼성전자는 8일 중국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갤럭시 폴드를 처음 출시했다. 당시 갤럭시 폴드는 전 채널에서 완판됐다.

특히 중국의 양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징둥(JD닷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제품이 2초 만에 모두 팔렸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상하이 난징동루에 연 플래그십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줄을 서서 갤럭시 폴드를 받아가는 현상도 일어났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올해 1분기

에는 1.1%로 1%를 넘었지만, 2분기 0.7%, 3분기엔 0.6%로 하락했다.

하지만 갤럭시 폴드 완판으로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주 메이트 X를 공개하는 화웨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메이트 X는 갤럭시 폴드보다 화면이 크지만, 화면을 밖으로 접는 아웃 폴딩 방식을 채택해 내구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갤럭시 폴드는 화면을 안으로 접는 인 폴딩 방식을 적용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갤럭시 폴드가 우위에 있다. 갤럭시 폴드의 가격은 1만 5999위안(약 265만 원)으로, 메이트 X보다 1000위안 저렴하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아시아나 새주인 ‘HDC현산’

오늘 우선협상자로 발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낙점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DC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매각 대상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HDT 등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전체다.

앞서 7일 진행된 아시아나항공 분입찰에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비롯해 애경-스톤브릿지 컨소시엄, KCGI-뱅크스트리트 컨소시엄 등 3곳의 쇼트리스트 업체가 참여했다.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초 논란이 된 SK그룹 계열사와 후니드 간 입찰 몰아주기 의혹에 조

국세청, SK 3세 기업 ‘후니드’ 특별세무조사

서울국세청 조사4국 투입

국세청이 SK그룹 3세 기업인 ‘후니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니드는 SK그룹 3세인 최영근 씨 등 3남매가 소유한 회사로, 위탁 급식 서비스와 인적 서비스 그리고 방송국 시설관리 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11일 동종업계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후니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달 중순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특별(심층)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초 논란이 된 SK그룹 계열사와 후니드 간 입찰 몰아주기 의혹에 조

실제로 후니드는 2004년 12월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된 후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2002억1297만 원을 기록하는 등 중견 기업으로 ‘초고속’ 성장했다. 주 거래처는 SK케미칼과 SK하이닉스, SK건설 등 다수의 SK 계열사를 비롯해 태영그룹 계열사인 태영건설 등이다. 이 때문일까. 후니드는 SK그룹 총수 일가와 태영그룹 간에 이뤄진 거래와 관련, 입찰 몰아주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형국이다. 한편 후니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아는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퇴직연금 손실나면 수수료 안받아요”

KB국민銀, 제도 개편... 연금수령 고객도 면제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대대적 개편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손실이 나면 펀드에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례는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연금 수령 고객에게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8면

국민은행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했다. 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은퇴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에게 운용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했다. 이 혜택은 KB증권도 함

게 제공한다. IRP 계약 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평생 20% 할인받는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 운용관리 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 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한다. 기존 4년 차 이상 15%에서 6~7년 차 18%, 8년 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제도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책임 투자를 위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마케팅 중심의 조직구조에서 고객·수익을 관리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강화했다. 5월에는 자산관리에 특화된 WM 그룹에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했고, 수익률 관리 전담 조직에서 수익률 향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는 고객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KB금융은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신현우 “항공엔진 부품 시장, 글로벌 톱 도약하겠다”

창원공장 기술 이전·연수 통해 베트남 공장서 新성장동력 찾아 롤스로이스 인증 5개월 단축 결실 국제공동개발사업 톱 5 진입할 것

“2025년까지 RSP(국제공동개발사업)의 톱 5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종적인 우리의 비전은 글로벌 No.1 파트너입니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이 5일(현지시간) 롤스로이스 영국 더비 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항공엔진 부품 분야의 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술장벽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공엔진 부품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 세계 1등을 외친 것이다.

신 사장은 “항공엔진 부품 공급은 LTA



신현우(앞줄 오른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과 앤디 그리즐리 롤스로이스 터빈 사업부장이 5일(현지시간) 엔진부품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장기공급계약)와 RSP가 있는데 이미 LTA는 글로벌 No.1이 됐다”며 “향후에는 RSP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SP 투자를 하려면 자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LTA 사업에서 지속적인 수주가 이뤄지면 선순환적으로(RSP에) 투자할 여유가 생

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LTA는 항공엔진 부품을 단순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반면 RSP는 신규 엔진 개발에 드는 대규모 개발비용과 발생 수익을 참여자분배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으로 독일, 영국 등 제작능력이 검증된 일부 선진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신 사장은 베트남 항공기 엔진 부품 공장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에 공장을 세울 때 3대 엔진 회사가 모두 ‘쉽지 않은 제품인데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있냐’고 가우뚱했지만, 창원공장에서 기술 이전도 하고 베트남 엔지니어들에게 연수도 받게 해서 성공적으로 과정을 이끌어갔다”고 소개했다. 특히 신 사장은 “롤스로이스가 베트남 제품을 쓰려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베트남 공장은 한 달 만에 인증을 받았다”며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초기에 기술적인 백업을 하고 투자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고 또 (항공엔진 업체에) 공급한 제품은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것이어서 한화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사장은 3대 항공기 엔진회사 중 GE, P&W와 달리 유독 협력이 어려웠던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

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롤스로이스는 기술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 보니 협업하다 보면 엔지니어들이 힘들어해 근무하기를 기피할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러나 롤스로이스와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지 않고 매출과 미래를 챙기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롤스로이스 사업을 키워보기로 한 뒤 약 4년 동안 매출이 3배가 증가하며 유의미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사장은 “한화가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향후 항공사업에서 결실을 보자는 의지 등을 감안한 결과”라며 “베트남 공장 역시 2공장도 롤스로이스 물량으로 채워졌고 3공장 역시 상당 부분 롤스로이스 부분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롤스로이스 전용 라인인 2공장을 지난달 착공했다. 내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데비(영국)=김유진 기자 eugene@

더 빨라진 ‘光클릭’... 中 광군제, 90분 만에 매출 19兆 돌파

작년 매출 속도 넘어 기록 행진 전 세계 쇼핑 참가자 5억명 추정 韓, 1시간새 최다 제품 판매 3위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 이벤트가 된 중국 알리바바의 쇼핑 축제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가 올해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11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시작된 광군제 쇼핑 축제는 90분도 안 돼 매출이 1140억 위안(약 19조 원)을 돌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불과 1시간 반 만에 사상 최대였던 작년 24시

간 매출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신기록이 쏟아졌다. 이날 0시를 기해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1분 36초 만에 거래액이 100억 위안을 돌파했다는 메시지가 전광판에 떴다. 이는 지난해 세웠던 2분 5초에서 더 단축된 것이다.

200억 위안 돌파에는 3분 22초, 500억 위안을 돌파하는 데는 12분 49초가 각각 걸렸다. 또 1시간 3분 59초 만에 1000억 위안 돌파를 달성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에서 쇼핑 참가자가 약 5억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0시부터 오전 1시 사이 84개 브랜드

가 1억 위안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국내 브랜드는 삼성전자와 LG생활건강 제품이 포함됐다. 또 이날 하루 전체 거래의 절반가량이 몰리는 처음 한 시간 동안 해외 직접 구매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광군제는 1990년대 중국 난징 대학생들이 숫자 ‘1’이 4개 있는 11월 11일을 ‘독신자의 날’로 기념한 데서 비롯됐다. 쇼핑 이벤트는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어느새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 날 금요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쇼핑 축제로 자리 잡았다.

2018년 광군제 매출은 전년보다 27% 늘어난 2135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307억 달러에 달해 광군제 24시간 매출이 블랙프라이데이에서 사이버먼데이(추수감사절 다음 주 월요일)로 이어지는 총 5일간 매출(약 242억 달러)을 훨씬 웃돌았다.

올해 광군제 기록은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도 중국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프로스트&설리번의 리처드 웡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기술(ICT) 부문 대표는 “알리바바는 무역 전쟁 영향을 회피하고 사업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소비에 대한 현재 심리와 신뢰감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숫자로 보는 광군제

5억 명 올해 쇼핑한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 수

20만 개 참가 브랜드 수

총거래액(GMV) 주요 기록

- 100억 위안: 행사 개시 1분 36초 만에 돌파 (작년의 2분 5초에서 단축)
- 500억 위안: 12분 49초 만에 돌파 (작년 기록은 26분 3초)
- 1000억 위안: 1시간 3분 59초 만에 돌파
- 1140억 위안: 행사 개시 후 1시간 반 만에 돌파
- 1682억 위안: 오전 10시까지 2017년 일일 기록 돌파

행사 시작 1시간 동안 가장 많은 제품 판매 10개국

1위	일본	2위	미국	3위	한국
4위	호주	5위	독일	6위	영국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캐나다
10위	뉴질랜드	※출처: 알리바바 공식 뉴스룸 '알리질라'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h.point
고객에게 드리는 행복한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 손 탄 '민간 분양가'... '들러리' 주정심 전철 밟나

분심위도 공공위원이 좌지우지 '독립성 훼손' 우려
전문가 "객관적 심의로 시장가 왜곡 막아야" 당부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철저히 정부 통제를 받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의 분양가 수준을 책정하는 회의체에 공공위원의 수가 민간위원보다 많거나 분양가 통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토부 산하기관이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수급(수요와 공급)과 주변 시세 흐름을 토대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 '비싸면 안 된다'는 정부의 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운영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해당 지역의 분양가 수준은 지자체 내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각각 결정한다.

주정심은 이미 '거수기' 논란에 휩싸인 회의체다. 주정심 위원 구성은 정부 부처 차관급 등 당연직위원 13명, 교수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6일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를 서울의 27개 동(洞)으로 지정하기 위해 열린 대면회의에는 당연직 위원 9명, 민간위원 8명이 참석했다.

이날도 주정심은 짜인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했다. 대면회의에 앞서 주정심 위원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엄포한 것이 문제였다. 약 20명에 달하는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기도 전에 위원장이 지침을 내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두성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지 3~4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토부가 제대로 준비했는지 의문"이라며 "주정심에서 원안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통과(지정)된 것은 형식상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분심위의 경우 이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감정원을 위원으로 새로 추가하면서 시장 상황보다는 정부의 입맛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분심위를 거치는 것과 별개로 HUG의 분양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 주체로서는 이중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를 통제하는 HUG의 분양보증 발급과 지자체의 분심위도 '따로 또 같이' 움직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와 관련된 법령에는 HUG의 분양보증 발급과 분심위 중에서 어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사업 주체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사전에 승인받은 분양보증과 분양가 수준을 기준으로 분심위에서 분양

분양가심사위원회 어떻게 구성되나

관련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 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개정 전	개정 후
민간 위원	6명 이상	6명
자격 조건	-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 관련 학문 전공자 -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 - 토목·건축 또는 주택 분야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 법학·경제학·부동산학·건축학·건축공학 등 주택 분야 관련 학문 전공자 -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 - 토목·건축·전기·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 (신설)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 3년 이상 종사자
공공 위원	3명 이상	4명
자격 조건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등 관련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내 주택사업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주택사업 인·허가 등 관련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 한국토지주택공사(TH) - 지방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감정원

가를 그대로 책정하는 일이 빈번했다. 분심위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HUG의 기준을 따르는 '복붙'(복사해서 붙이기) 수준에 머문 것이다.

더욱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며 직접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한 만큼 분심위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보증 발급과

분심위 중 어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분심위에 HUG가 참여하는 것은 결국 '육상옥'인 꼴인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심위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HUG가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면서 분양가 책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HUG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예전보다 더 정부의 입김에 분심위가 좌지우지될 수도 있

다"고 우려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전문성을 갖춘 HUG가 분심위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HUG가 분심위에 참여하면서 분양가를 옥죌다는 것보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분양가를 더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분심위의 전문성을 위해 HUG와 감정원을 심사위원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재구성 준비” vs “해서 뭐하나” 8개區 분심위 운영계획 제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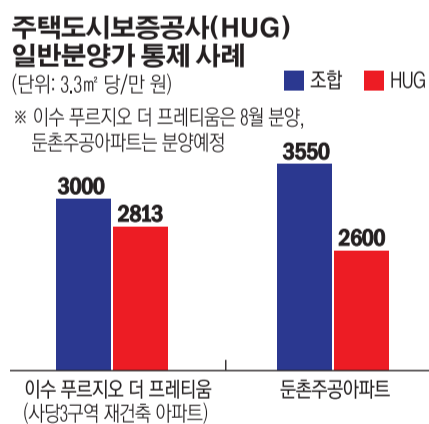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8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 운영 계획이 제각각이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와 함께 발 빠르게 분심위 재구성을 준비하는 곳이 있는 반면, 당장 심사할 사업지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업체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자치구 8곳 중에 현재 분심위가 활동 중인 곳은 송파구청이 유일하다. 송파구 장지·거여동 일대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오면서 최근까지 분양가를 심사했기 때문이다. 올해엔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현재 분심위 임기는 내년 말까지다. 송파구는 내년에 분심위 재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민간택지에서 나올 분양 물량이 없어 심사할 사업지가 없기 때문이다.

송파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자치구의 분심위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에 사실상 폐지된 이후 심사할 대상이 없어 위원회를 존속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분심위는 주택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구성된다. 이번에 개정된 해당 법령에는 분심위의 민간위원을 6명, 공공위원을 4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해 선정된다.

그나마 강남·영등포구청에서 분심위를 구성해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강남구청의 현 분심위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강



남구청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구성을 검토 중이다. 영등포구는 작년에 분심위를 재구성해 위원들의 임기 부분만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분심위 재구성을 주거개선과에서 준비 중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다. 마포·용산·성동구도 당장 심사 사업지가 없는 만큼 분심위 재구성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한 자치구청 담당과 관계자는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어서 당장 분심위를 구성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심위가 민간택지의 분양가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해당 자치구에서 책임감을 갖고 분심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성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 심사 결과를 재건축·재개발 추진 사업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분심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분양가 심사는 객관성을 갖춰야 하고 심사 결과는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KB 금융그룹 | 국민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가족 모두 건강해야 하니까 희망 가득 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날을 살아갑니다
아픈 날도, 아프지 않은 날도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를 든든하게 케어해주는
건강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생활 속 다양한 보장과 케어를 하나로!
☎️ KB The드림365건강보험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125호 (2019.01.07)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센터: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 활력과제 발굴, 내년 성장률 2.3% 달성”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제시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 2.3% 이상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인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글로벌 경제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및 잠재성장률 제고

산업·노동시장·공공부문 등 5대분야 구조개혁 구체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나...국가채무 2023년 46.4%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 지원 및 포용 기반 강화 등 3가지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 등 구조적 변화 대응, 규제혁신 및 사회적 자본 축적 등 ‘4+1’ 분야 구조개혁에 대한 실천과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이슈와 관련해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연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 이후 1조 원 흑자가 예상되나,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정산분이 지출로 나타나는 부분과 이·불용

을 최소화해도 남게 되는 이·불용 규모를 종합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균형을 다소 밀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정된 통합재정수지 적자(-1.6%)가 올해로 앞당겨지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39.8%, 2023년 46.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세계적으로 양호한 수



준”이라며 “2020년 적자국채가 26조4000억 원 늘어나, 이는 지난 2년간 초과세수에 기반한 국제 조기상환 및 국가국채 발행분 미발행으로 비축된 28조4000억 원의 재정여력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 효과에 대해서 “올해 재정 역할이 없었다면 성장률이 더 하락했을 것이

라며 “재정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성장의 주체가 되어 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중반으로 설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에 대비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통일 대비해 재정여력 비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금은 경기 대응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감안하면 40% 중반까진 불가피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후에 또 급격하게 재정건전성이 악화한다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AI·자율주행차·빅데이터 13일부터 ‘원샷법’ 적용

산업위기지역 기업 ‘기활법’ 혜택

앞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과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 및 협력업체까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기활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했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내 위기 기업이 빠른 사업 재편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혜택을 주는 특별법이다.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서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활법은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활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 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동력 기술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84개가 여기에 속한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조선업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 기준으로 적용된다.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포함된다.

기활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자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기활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산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받기 쉬워졌다.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보잉 737NG 동체 수리 1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격납고에서 동체에 균열이 발생한 보잉737NG 항공기 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보잉 737NG 항공기를 긴급 점검해 동체 균열이 발견된 13대를 이날 운항중지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대기업 지주사 전환 뒤 총수家 지배력 더 강화

계열사의 64%가 규제 사각지대...총수일가 경제력 집중 우려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6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사각지대에 속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주회사란 공정거래법상 주식을 소유해 사업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173개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173개 지주회사 중 94개사(54.3%)가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 지주회사였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여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일본과의 양허안 협상 관련 “쌀은 양허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RCEP 협상에서 “양허 대상에 쌀을 넣으려는 나라 있었나라는 질문에 “쌀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이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약의와 관련, “둘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은 총 23개사로 전년보다 1개사 증가했다.

이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27.4%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그러나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전년보다 4.9%P 늘어난 49.7%를 기록했다. 새로 전환집단이 된 효성과 애경의 총수지분율(효성 9.4%·애경 7.4%)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효성 53.3%·애경 45.9%)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21개사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사로 전년보다 57개사 늘었다. 이는 롯데·효성·HDC·애경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중 총수일가 소유 지분 20% 이상 회사(상장사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사다.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올품(하림지주), 신양관광개발(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총수 일가 소유지분율 20~30% 상장사 등)는 29개사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82%로 전년(17.16%)보다 다소 줄었으나 일반 기업집단(9.87%)보다는 높았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유명희 “쌀은 RCEP 양허 대상 아냐” “한국 車 관세 관련, 美도 양국 호혜적 교역 긍정평가”

파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차 양자협약의 실패 시 패널 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2차 협의에서 모든 사안이 해소될지, 추가로 논의할 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달 13일이 시한인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에 대해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행하는 국가인 만큼 우리나라는 자동차 232조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미국 측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

한전, 광에 2.3조 전력 판매 계약

가스복합발전소 25년간 운영

한국전력이 미국 광 가스복합발전소의 전력 판매를 맡게 돼 25년간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했다.

한전은 이달 5일 미국 광 전력청(GPA)과 우쿠두가스복합발전(200MW급) 프로젝트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전은 우쿠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5년간 광 전력청에 전량 판매하게 된다.

한전은 올해 6월 이번 계약과 관련한 수주 경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광 전력청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1일 광 공공요금규제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계약은 발전소 건설과 운영, 양도를 모두 포함하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사업 기간에만 총 2조 3000억 원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우쿠두 발전소는 내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해 2022년 10월부터 상업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설계·조달·시공(EPC) 건설사와 중소기업들이 발전소 건설, 관련 보조기기 공급 등을 맡게 돼 전력판매를 통한 매출과 별도로 약 6286억 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은 1995년부터 해외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 현재 미주, 중동, 아시아 등 총 26개국에서 42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정 협상과 양국 간 호혜적 교역·투자 등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린 만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RCEP을 통해 양자 FTA를 체결할 일본 관련 “일본과 (RCEP) 양허안을 교환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RCEP가 지향하는) 시장통합의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총청·PK·TK 의원 예산소위 포진... 전남·북은 없어

여야 예산소위 의원 면면 살펴보니... 각당 총선 전략 맞물려 TK 공들이는 민주 김현권 배정...“호남 배제는 심각한 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예산소위는 11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넘기는 역할을 맡는다.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예산안을 확정하는 '계수조정' 작업으로 원래의 예산이 '칼질' 되기도 하고, 정부 예산안에 없던 예산이 증액되기도 한다. 예산소위가 '슈퍼 소위'로 불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예산소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지도부도 촉각을 곤두세운 인물들이다. 또 지역단체와 정부부처도 예산 확보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소위 의원은 총 1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송갑석(광주 서구갑)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김현권(비례대표) 의원 등을 선정했다. 한국당은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이현재(경기

하남시) △박완수(경남 창원시 의창구) △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원을 선임했다. 바른미래당은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과 신용현(비례, 대전 유성을 위원장) 의원으로 확정했다.

눈에 띄는 의원은 TK(대구·경북) 의원들이다.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김현권 의원을 배정했다. 통상 각 정당이 예산소위를 구성할 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광역권역으로 나눠 담당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민주당이 TK지역을 따로 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비를 앞세워 민심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충청권에서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정용기 한국당 의원이 맞붙었다.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만큼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이들의 예산안 살바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예산소위 위원에 전북과 전남은 배제돼 정치권이 이를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15명의 소위원회 명단에서 전북과 전남은 완전히 배제됐다. 영남이 4명, 충청도가 4명인 데 비해, 호남에서는 광주 1명뿐"이라면서 "의원 수의 10%를 넘는 비교집단체 의원들 뒤편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김재원(가운데) 예결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불매”에 항공사 매출 7800억 감소 전망

한국항공협회 “규제완화 시급”

일본 여객 감소 탓으로 올해 국적 항공사가 입은 국제선 매출 피해액이 7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에서는 타개책으로 국적사에만 적용되는 규제 완화와 인바운드 활성화 전략을 꼽았다.

한국항공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10월 일본으로 떠난 승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고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53%나 줄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7월에 3% 증가했던 일본 여객 수는 8월(-22%), 9월(-30.4%), 10월(43%) 모두 크게 줄었다. 승객 수 감소의 여파로 공급석 또한 줄었다. 지난해 9월 165만 석이었던 공급석은 143만 석으로 13.3% 감소했다.

한국항공협회는 일본 노선의 피해로 국제선이 올해 말까지 7800억 원의 매출 피

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항공업 위기의 해법으로 '규제 완화'를 일제히 꼽았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국제 기준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며 “재산세, 부품 관세 등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나 법 절차 등의 자율화에 힘쓴다면 항공사들이 훨씬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상무는 “국적사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경쟁 중”이라며 “미국, 영국, 중국 등이 시행 중인 지방세를 면제하고 부품 관세 면제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항공유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지원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김기승 기자 kissong@

文대통령 “일관성 갖고 혁신·포용·공정의 길 갈 것”

임기 후반기 첫 수보회의 주제 “국민 질책 듣고 성과 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 동안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추진해온 국정 방향을 유지하면서 남은 임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기 후반기의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면서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

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임기 반환점을 맞는 각오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네 가지 과제를 일일이 거론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다. 더욱 속도를 내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할 것이다”라면서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다. 지금의 성과와 변화에 머물지 말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따뜻하고 안전

한 사회가 될 때까지 중단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제도 안에 숨겨진 특권과 불공정 요소까지 바로잡아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평화에 대해서는 다른 과제보다 힘을 실으며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평화 변경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변함없는 의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성공시켜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2년 반, 국민들에게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기”라면서 소통과 공감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2018년 한국가스공사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선(금상) 한 수상자의 작품입니다.



이 새싹은
나중에 울창한 숲으로
만들거립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 천연가스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갑니다.



마윈 없는 알리바바 中 정부 눈치밥 먹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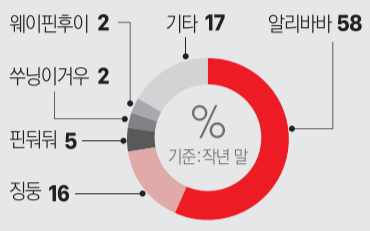
신임 CEO, 첫 광군제 성공했지만
中 당국, 독과점·환경오염 '경고장'
압도적 시장점유율에도 과제 산적



대니얼 장 알리바바그룹 CEO

중국 인터넷 쇼핑물 업체별 시장점유율

※출처: 나훤게이아이신문



중국 알리바바그룹홀딩이 마윈 설립자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이후 첫 대형 이벤트인 세계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독신자의 날)'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9월 마윈으로부터 배턴을 이어받은 대니얼 장(중국 이름 장용·47) 현 알리바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올해 광군제 행사에서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그는 타사와의 경쟁 격화 이외에도 환경 오염과 독과점 우려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적했다.

알리바바는 2009년 티몰(Tmall) 출범에 맞춰 처음 광군제 행사를 열었으나 장이 2015년 전 세계 주요 기업과 브랜드가 참가하는 쇼핑 축제 판을 키우면서 광군제는 세계 최대 쇼핑 축제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됐다. 광군제의 성공은 장이 마윈의 후계자로서 자리매김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1일 발표된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1%나 증가, 명실공히 알리바바 수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다만 광군제가 성공할수록 장 회장이 짊어진 짐도 무거워지고 있다. 우선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인 징둥상징(JD닷컴)과 저가형 제품 유통에 초점을 맞춰 3강 구도의 한 축으로 떠오른 핀뉘뉘 등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갈수록 커지는 환경오염 이슈다. 알리바바는 광군제 행사 때마다 단 하루에 10억 건의 포장 배송으로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알리바바는 올해 광군제를 앞두고 물류 자회사인 '차이냐오(Cainiao)'

를 통해 7만5000개에 달하는 배송 거점을 상설 재활용 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포장 상자와 포장지 수거, 재활용 작업에 대해서도 여러 택배업체와 협력할 방침이다.

고객에게서 들어오는 막대한 주문을 저장하고 처리할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시스템도 친환경 준비태세를 갖췄다. 알리바바는 새 냉각 기술 적용으로 올해 광군제 행사의 전력 소비를 예년보다 70% 이상 줄였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시장 독과점으로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점유율은 작년 말 기준 약 60%에 달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5일 알리바바 등 현지 20개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불러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판매업체들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은 독점금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단호하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업계에서는 알리바바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무기로 급성장해왔지만 무리한 방법에 대해선 역풍이 강하다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대선 부정 논란' 볼리비아 대통령 사퇴

무리한 집권 연장 시도에 여론 악화... '14년 권좌' 종지부

에보 모랄레스(사진) 볼리비아 대통령이 선거 부정 논란 속에 결국 대통령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한때는 부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의 희망이 었으나 장기 집권 욕심에 발목이 잡히면서 '부정의 아이콘'으로서 약 14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엘데베르 등에 따르면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날 오후 TV 연설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4선 연임에 도전했던 모랄레스 대통령은 선거를 치른 후 약 3주 만에 사퇴하게 됐다.

집권 초기만 해도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2006년 1월 원주민으로서는 처음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모랄레스는 일부 엘리트가 부를 독점한 기존 볼리비아의 사회구조를 개조하고, 자원 수출로 얻은 부를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을 통한 빈곤 해소에 기여했으며, 수년간 평균 5%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경기 호조에는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원 가격 상승도 한몫 토포했다. 볼리비아는 천연가스를 비롯해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원자재인 리튬의 매장량이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생산지가 전 세계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백색 황금' 또는 '하얀 석유'로 불린다. 이에 최근에는 중국, 독일 등 기업들이 볼리비아 리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 등에 힘입어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 세 번의 대선을 치르는 동안 결연 없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덕분에 '중남미 현역 최장수 지도

자'라는 호칭도 얻었다.

그러나 4선 연임을 위한 개헌 등 무리한 집권 연장을 시도한 게 화근이었다. 지난달 20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랄레스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를 선언, 19년 장기 집권의 꿈이 눈앞에 펼쳐지려던 참이었다.

석연치 않은 개표 과정이 문제였다. 선거 당일 중간 투표 결과가 공개됐을 때만 해도 1·2위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선거관리 당국의 개표 결과 공개가 중단되더니 하루 뒤 10%포인트나 차이 나는 투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야권은 이에 반발하며 불법 시위에 나섰고, 모랄레스 대통령은 "쿠데타 시도"라며 야권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미주기구(OAS)가 투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선거를 무효로 하고 새로 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는 버틸 명분이 사라진 모랄레스 대통령은 새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내년 1월까지인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했으나 군과 경찰 수장이 나서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하자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변호선 기자 hsbun@



홍콩 시위 참가자, 경찰 실탄 사격에 중태

홍콩 사이완호 지역에서 11일(현지시간) 오전 한 경찰(왼쪽)이 복면의 시위 참가자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이 장면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는데, 이 시위 참가자는 결국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총격은 경찰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남성 신용한도 여성의 20배? '성차별' 조사받는 '애플카드'

애플과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함께 선보인 신용카드 '애플카드'(Apple Card)가 출시 3달여 만에 성차별 논란에 휘말렸다.

10일(현지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애플이 8월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선보인 아이폰 연동형 신용카드인 '애플카드'에 대해, 같은 조건임에도 남성과 여성의 신용한도를 다르게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데이비드 헨슨은 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와 아내의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합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왔다"며 자신의 신용카드 한도가 아내의 20배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의 신용점수가 자신보다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 역시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아내가 별도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계정, 분리된 자산이 없음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워즈니악과 그의 아내의 신용 한도는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잇따르자 뉴욕주 금융당국(DFS)은 애플카드의 성차별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돌입했다. 린다 레이스웰 뉴욕 DFS 감독관은 "관련 부처가 애플과 골드만삭스의 신용한도 설정 관행이 뉴욕주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어떤 알고리즘이 됐든 고의로 남녀 간 신용 한도에 차이를 둔다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블룸버그통신에 "신용 결정은 고객의 신용도에 근거하며, 성별, 인종, 나이, 성적 취향 또는 법으로 금지하는 그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애플카드를 8월 애플이 서비스 사업 강화를 위해 골드만삭스와 공동 개발한 신용카드다.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 최신 버전이 탑재된 아이폰 이용자는 '월렛(Wallet)'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이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애플페이로 오프라인 상점이나 앱, 애플의 웹사이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애플카드를 서비스 결제액의 1~3%를 결제 당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변호선 기자 hsbun@

"530억 배럴 유전 발견"... 어깨에 힘준 이란

매장량 '세계 3위' 오를 듯... '백악관 알아야' 큰소리

이란이 남서부 유전지대 후제스탄주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이란 경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란 중부 사막 도시 야즈드에서 열린 연설에서 "국영 석유회사 근로자들과 탐사대가 원유 매장량이 530억 배럴에 이르는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견된 유전의 규모는 2400㎞, 오일 층의 깊이는 8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량을 기준으로 하면 아흐바즈 유전(650억 배럴)에 이어 이란 내에서 두 번째로 크다.

로하니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유전의 상업적 생산이 확인된다면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약 2000억 배럴로 30% 늘

어나면서, 캐나다(1689억 배럴)를 제치고 전 세계 원유 매장량 3위 국가로 올라서게 된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 반가운 소식을 국민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새로운 유전으로 국민의 부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 유전에서의 채굴이 1%만 증가해도 이란의 석유 수입이 320억 달러(약 37조 원)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형 유전은 정부와 국영석유회사가 이란 국민에 선사하는 조그만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하니 대통령은 자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미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아무리 강력한 경제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우리는 530억 배럴의 유전

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백악관은 알아야 한다"고 큰소리쳤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특히 이란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수출에 제재의 초점을 맞추면서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전 하루 230만 배럴에 달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최근 하루 평균 50만 배럴 정도로 급격히 쪼그라 들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유전에서 생산이 시작되더라도 수출처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로하니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비석유 부문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우리에게 혁신의 자연스럽다

#친환경 전기차배터리

친환경 자동차 시대
 SK가 전기차 배터리로 앞서갑니다
 더 빨리 충전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안전한 고성능 배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혁신이 자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

수익률 1%대 퇴직연금... “가입자 유치 경쟁 치열해야”

퇴직연금 규모 200兆 확대 불구
적립금 없는 강통계좌가 46%
신한 이어 국민銀도 수수료 개편
수익률 개선 아닌 경쟁만 부추려
“수익률 중심 영업방식으로 가야”

KB국민은행이 200조 원 규모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패권경쟁에 불씨를 던졌다.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가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수수료 개편 등 질적 성장을 위한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된다. 결국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가 상품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국민은행은 11일 금융권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립 금액을 연금으로

국민·신한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비교

국민은행 ※적용 시기 : 2019년 7월

- 퇴직연금 누적수익이 '0' 이하인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
- 은퇴 이후 개인형 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에게 운용관리 수수료를 전부 면제
- 만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평생 20% 할인
-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앱 포트폴리오 이용 시 운용관리 수수료 50% 추가 할인
- 현재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이 추가 적용

신한은행 ※적용 시기 : 2019년 11월

-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익 손실 날 경우 수수료 면제
- 관리 수수료 최대 70% 감면
- 만34세 이하 가입자 운용관리 수수료 추가 20% 할인
-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 수령하는 고객 최대 70% 감면(추진)

수령받는 고객에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가입한 퇴직연금이 손실이 날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관리를 통한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는 복안이다. 앞서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수수료 감면을 내세운 곳은 신한금융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올 7월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익에 손실이 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관리 수수료는 최대 70% 감면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또 만 34세 이

하에 가입하면 운용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20% 깎아주고,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최대 70%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은 수수료의 50%를 우대하고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 원 이하 기업과 IRP 1억 원 미만 고객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손실이 나면 펀드에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날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 면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달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최대 70% 감면하고, 목표 수익률 이하 손절매 구간 진입 시 자동환매되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최근 사회 초년생 때부터 연금자산을 준비하려는 만 19세부터 34세 미만 가입자에 대해 개인형 IRP 수수료를 70% 인하했다.

이처럼 금융권이 퇴직연금 개편 작업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는 것은 '수익률 부진'이 이어지면서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시장이 200조 원 규모로 커졌지만, 수익률은 연평균 1%대에 그치고 있다. 원리금 비보장형의 경우 3년, 5년 장기 수익률도 예금금리보다 못한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에 고객 수익률은 뒷전인 채 가입자 유치 경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수수료 개편 작업보다는 본질적으로 영업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기준 IRP 계좌에 적립금 없는 이른바 강통계좌는 172만7980개로 전체의 45.8%를 차지했다. 은행들이 퇴직연금 가입자 늘리기에만 치중하는 영업 관행의 결과물이다. 이에 KPI(성과평가지표)를 퇴직연금 금액 목표나 가입자 수 확보 중심에서 수익률 관점으로 전환하는 등 퇴직연금 개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금감원 '4개 기업+α' 키코 분쟁조정안 만든다

추가 분쟁 예정 기업 150곳 육박
은행 6곳과 가이드라인 조율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더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 분쟁 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달하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션 등 4개 기업의 분쟁 조정안을 준비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일단 4개 기업에 대한 내부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당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만큼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고 조사 내용을 6개 은행에 각각 설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액은 모두 1500억 원가량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앞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이 됐다. 금감원과 은행들 사이에 벌인 이들 기업 4곳에 대한 분쟁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 안전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

이다.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과를 신호탄으로 다른 기업들의 분쟁 조정 신청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4개 기업+α' 조정안을 준비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론과 '4개 기업+α' 조정안을 토대로 은행들과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다. 나머지 기업들의 분쟁 조정은 최종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기업과 은행 간 자율 조정에 맡기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에 자율 조정을 의뢰할 방침이며, 키코공통대책위원회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숨은 자산 9.5兆 찾아가세요”

금융정보 포털 '파인'서 조회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과 공동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예금을 비롯해 보험금, 증권(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실기주 과실), 신탁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잊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은 6월말 기준 9조5000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휴면 재산이 1조2000억 원이며,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8조3000억 원이다. 계좌로 따지면 2억 개에 이르며, 상품별로는 예·적금 5조 원, 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캡처 화면.

험금 4조1000억 원, 증권 3000억 원, 신탁 1000억 원이다. 앞서 9월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전 금융권 계좌 조회부터 해지까지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정보포털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휴면 금융자산) △내 계좌 한눈에(장기 미거래 금융자산)를 클릭해 조회하면 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시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에어버스 A380〉

‘하늘 위 호텔’ 띄우는 롤스로이스 “한화는 미래 동반자”

英 ‘세계 3대 항공엔진’ 공장 가보니

첨단 트랜트 시리즈, 안전성 위해 자동화 대신 100% 수작업
터빈부 핵심 부품 한화서 공급...차세대 엔진 합작개발 희망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북쪽으로 세 시간을 차로 달려 데비셔주(州) 데비에 있는 ‘롤스로이스(Rolls-Royce)’사의 엔진 생산공장을 마주할 수 있었다.

이곳에 들어서자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에어버스 A380의 항공엔진 ‘트랜트 900’ 조립에 한창이었다.

통상 엔진 1개를 만드는 데는 수천 개의 부품을 12~15일에 걸쳐 조립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롤스로이스 엔지니어들은 하나하나 직접 끼우며 전통적인 수작업을 고집하고 있었다.

롤스로이스 관계자는 “최첨단 항공엔진 조립라인의 자동화는 0%로, 조립 과정이 정밀하게 이뤄져야 해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제작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 면에서도 검증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잘 알려진 롤스로이스는 100년이 넘는 항공기 엔진 분야의 강자로, 미국의 GE(제너럴일렉트릭), P&W(프랫 앤 휘트니)와 글로벌 3대 항공기 엔진 제조사로 꼽힌다.

공장 자동화라는 글로벌 흐름에도 아직 수작업을 고집할 정도로 기술력에 대한 자

공심이 높기로 유명한 롤스로이스의 최첨단 항공엔진 ‘트랜트’ 시리즈에는 한국 기술이 적용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케이스와 터빈부 적용 핵심 부품 등을 롤스로이스에 납품하고 있다.

워릭 매튜 롤스로이스 인스톨레이션 사업 총괄부사장(EVP)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생산·제조한 ‘엔진 연소기 케이스’, ‘항공기 엔진 케이스’, ‘내부 구조대’ 등의 핵심 부품들도 이 엔진에 조립되고 있다”며 “700여 개의 파트너사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위 10위에 드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5년 전인 1984년부터 롤스로이스와 협력해왔으나, 핵심 파트너가 된 것은 최근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대 엔진 제작사 중 롤스로이스와의 협력 관계가 비교적 약했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5년 미국 P&W사로부터 단순 엔진부품 공급업체에서 RSP사업(국제공동개발사업) 파트너로 지위가 격상된 이후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베트남 항공엔진 부품 공장을 통해 엄격한 롤스로이스의 요구 조건을 맞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 제작 현장에서 엔지니어가 엔진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사진제공 롤스로이스

추며 신뢰도를 높인 점도 롤스로이스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문을 연 이유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롤스로이스의 엔진에 대한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도 “베트남 공장의 기술적 백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줬고 투자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면서 (롤스로이스 경영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 끝에 양사의 사업 규모는 수억 달러 수준으로 커졌다. 최근에는 향후 25년에 걸쳐 최대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최첨단 항공기 엔진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달 착공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베트남 2공장이 롤스로이스의 전용 라인으로 구축될 정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롤스로이스의 협력 관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항공엔진 개발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하길 바라고 있다는 워릭 부사장은 “향후 환경을 고려해 연료 소모, 소음,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 중이며 파트너사도 이에 관한 개발과 투자를 해야 하는데 한화에어로스

페이스는 이미 이러한 개발과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노버트 안트 롤스로이스 구조물-트랜스미션 사업 총괄부사장은 “최근 글로벌 항공엔진 업계에서 신강자로 빠르게 도약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롤스로이스의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 확대에 따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4조 원을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항공사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대비(영국)=김유진 기자 eugene@**



11일 인천 부평 한국지엠 본사로 첫 출근한 군산공장 무급 휴직자들이 간담회에서 노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 휴직자 298명’ 부평공장 복직

3년 무급휴직 1년반으로 단축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로 무급 휴직에 들어갔던 근로자 298명이 11일 부평공장으로 다시 출근했다. 이들은 부평 2공장에 배치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랙스 생산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이 지난해 5월 말 군산공장을 폐쇄할 당시 이곳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200여 명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600여 명 중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지 않은 298명이 1년 6개월 동안 무급휴직자로 남아

있었다. 애초 한국지엠 노사는 3년 동안 무급휴직을 유지한 뒤 복직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노조가 조속한 복직을 요구함에 따라 복직 시기를 1년 6개월가량 앞당기게 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부평공장에 배치된 군산공장 무급 휴직자들이 주거 문제를 겪지 않도록 6개월간 임시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데도 합의했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GM은 설날을 앞두고 군산공장 폐쇄를 통보했다”며 “누구도 휴직자들의 고통과 그동안의 인내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삼성디스플레이, 폐기물 재활용률 97% ‘매립제로’ 인증

삼성디스플레이가 폐기물 재활용률 97%를 달성해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글로벌 인증기관인 UL로부터 폐기물 매립제로 부문에서 ‘골드(GOLD)’ 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UL의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평

가해 일정 수준에 이르는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액의 불순물을 여과장치를 통해 걸러내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폐유리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폐기물 저감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아산2캠퍼스에서 폐기물 재활용률 97%를 달성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 차세대 반도체, 중국폰 먼저 탑재된 까닭은

5G 통신칩은 비보...1억 화소 센서, 샤오미 공급 “중서 고전한 스마트폰 사업, 부품으로 상쇄 기회”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선(先) 탑재되고 있다. 중국시장 확대를 위한 삼성전자의 부품 공급 전략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에는 삼성이 자체 개발한 5G 통신칩을 처음 탑재했고, 세계 최초 1억800만 화소 이미지센서 역시 중국 샤오미에 처음으로 공급됐다.

그동안 부품 사업부가 최초 개발한 반도체 칩 등은 갤럭시 시리즈에 먼저 적용됐다. 하지만 올 들어 삼성의 세트 사업 경쟁사에 먼저 부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9월 공개한 첫 5G 통합칩 ‘엑시노스 980’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를 통해 처음으로 상용화된다. 이 칩이 탑재된 비보 ‘비보 X30’은 다음 달 출시될 예정이다. 비보는 8일 중국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비보 측은 “현재 듀얼 모드 5G를 지원하는 유일한 칩세트”라며 “이것이 바로 비보가 다른 업체 부품이 아닌 삼성 부품을 사용한 이유”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8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1억800만 화소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도 샤오미 스마트폰에 먼저 탑재했다.

샤오미는 1일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가 탑재된 ‘미CC9 프로’를 공식 출시했다. 다음 달 말에도 1억800만 화소 아이소셀이 탑재된 프리미엄 스마트폰 ‘미믹스 알파’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성장 속도가 예전 같지 않고,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및 현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업체의 부상이 삼성 스마트폰 지위에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삼성은 세트와 부품을 철저히 분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엔 세트와 사업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삼성 스마트폰의 지위를 부품에서 상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제네시스 신차, 노면소음 0.002초 만에 줄인다

현대차 능동형 저감기술 RANC 반대 음파 내보내 소음 상쇄 KAIST·하만 등과 세계 첫 개발

현대자동차그룹이 노면소음을 줄이는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기술(RANC)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제네시스 신차에 적용한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RANC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노면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를 상쇄하는 반대 위상의 음파를 발생함으로써 실내 정숙성을 향상하는 기술이다.

반응이 빠른 가속도 센서가 노면에서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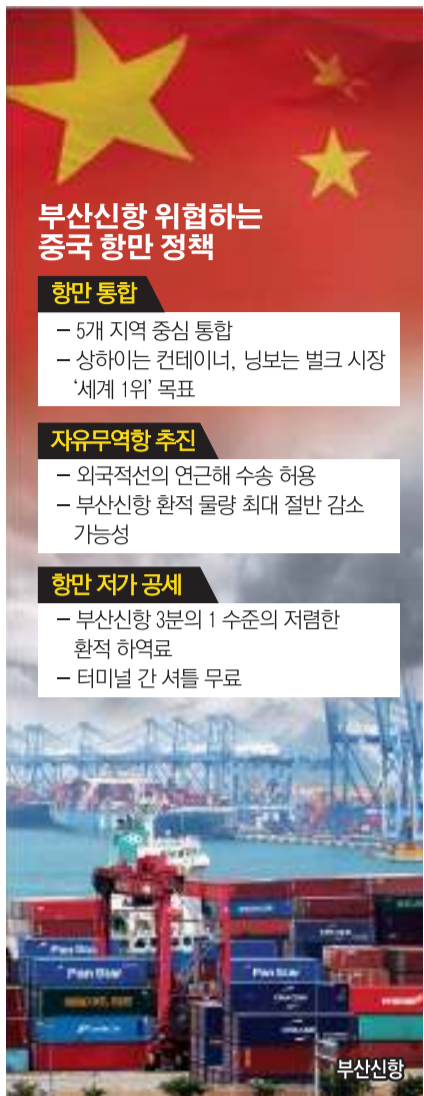
로 전달되는 진동을 계속하면 DSP라는 제어 컴퓨터가 소음의 유형과 크기를 실시간 분석한 뒤 상쇄 음파를 생성해 오디오 시스템의 스피커로 내보내는 원리다.

처음재와 다이내믹 댄퍼 등을 사용하던 기존의 소음 차단 방식은 차 무게가 늘어 연료 효율에 불리했고, 저주파 소음도 차단할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품을 쓰고 저주파 소음도 개선할 수 있는 능동형 소음 저감 기술(ANC)은 일부 차종에 도입됐지만, 기술적 한계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노면 소음은 약 0.009초 만에 실내로 전달되는 데다 불규칙한 탓에 이를 측정하고 분석한

뒤 상쇄 음파를 즉시 발생해 소음을 줄이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RANC는 소음 분석부터 반대 위상 음파를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0.002초에 불과하므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불규칙한 노면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6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RANC 양산 적용에 성공했다. 선행 개발 단계는 KAIST 등이 참여하는 산학협력 형태로 진행했고, 양산 단계에서는 오디오 전문 하만과 협업을 완성도를 높였다. RANC 적용으로 감소하는 약 3dB의 소음은 실내 소음에너지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효과를 낸다. **유창욱 기자 woogi@**



부산신항 위협하는 중국 항만 정책

항만 통합

- 5개 지역 중심 통합
- 상하이 컨테이너, 닝보-벌크 '세계 1위' 목표

자유무역항 추진

- 외국선사의 연근해 수송 허용
- 부산신항 환적 물량 최대 절반 감소 가능성

항만 저가 공세

- 부산신항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환적 하역료
- 터미널 간 셔틀 무료

부산신항, 中 '공룡항만'에 물량 절반 뺏기나

〈환적〉

상하이-컨테이너, 닝보-벌크 中 '글로벌 No.1' 정책 추진 저가 공세·외국선사 수송 허용 부산 안 거치고 제3국 갈수도

중국의 '거대화, 글로벌 No.1' 해운 정책 추진으로 부산신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국 정부의 항만 통합 작업과 항만 자유화로 인해 중국에 물량을 뺏기며 메가톤급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항만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해운정책 방향은 '세계 최대, 거대화'로 상하이 등 글로벌 물동량 1위를 유지함은 물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물동량까지 모조리 중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다.

항만 통합 작업은 크게 랴오닝성, 산둥성, 텐진과 발해만 지역, 주강삼각지(광둥성), 장강삼각지(상하이·저장성·장쑤성·안후이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랴오닝성은 이미 통합이 완료됐으며, 다롄항을 중심으로 잉코항 등 주변 항만의 이름은 랴오닝항구집단으로 변경됐다.

산둥성은 칭다오항을 중심으로 7개 항(칭다오·엔타이·웨이하이·둥잉·르자오·빈저우·웨이팡)이 산둥항으로 편성됐으며, 나머지 3곳 통합은 추진 중이다.

특히, 4개의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장강삼각지가 부산신항을 위협하는 거대 통합항만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상하이는 컨테이너, 닝보는 벌크 시장을 모조리 삼키는 '전 세계 No.1'이라는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FTZ(Free Trade Zone)의 개념을 넘어서 자유 무역항(Free Por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모든 항만이 자유 무역항으로 될 경우 기존에 금지됐던 외국 선사의 연근해 수송이 허용되며, 이미 상당수의 선사들이 세관과 항만의 묵인하에 운항권을 확보해 운송하고 있다.

이는 특히 부산의 환적(TS)물량 확보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적 화물은 부산항에서 배를 바꿔 제3국으로 가는 다른 나라의 화물을 뜻한다. 부산신항의 전체 물동량 중에서 50~60%나 차지하는 TS 상당수가 부산을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의미다.

TS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량으로, 특히 북중국발 유럽항 중동, 인도항 TS 물량이 상당히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연간 1000만 TEU(1TEU=20피트 컨테이너 한개)에 달하는 부산신항의 환적물량 중 최대 절반 가량이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실이 최대한 반영된 중국의 항만 가격정책 역시 부산신항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 항만의 가격정책은 지역별로 각 선사의 기본 요율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물동량의 성장세와 비중에 따라 할인, 인센티브 등으로 차등을 둔다.

특히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피한 TS 물량의 경우, 부산신항 대비 30% 수준의 저렴한 하역료를 측정해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선다.

반면, 부산의 경우 북항→신항, 신항→신항 간의 셔틀 발생 시에도 엄청난 비용이 생겨나 상하이 등 중국 주요 항만과 경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상하이의 경우 서로 다른 터미널 간 셔틀 시, 별도 비용 없이 항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송사를 통해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같은 부산신항의 가격 정책에 따라, 국적 선사가 상대적으로 물동량이 많음에도 외국 선사 대비 오히려 비싼 하역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국적 선사가 중국에서는 규모 경쟁에서 밀리고, 국내에서는 가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셈이다. 안 그래도 줄어드는 부산신항 물동량이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9월 수출입 화물(-7.3%)과 환적 화물(-8.7%) 모두 줄어 전체 물동량이 8.1% 감소했으며, 연말까지 물동량이 목표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원하는 색상·차종 VR로 만나세요”

현대차 대리점 가상현실 도입
실물 차종 없을 땐 간접 체험



'2017 CES 아시아' 현대차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가상현실 내비게이션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자동차가 전국 주요 대리점에 '가상현실(VR) 전시룸'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찾는 다양한 차종과 색상 등을 공간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1일 자동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는 주요 판매 대리점에 VR 전시룸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최근 관련 제품 시연까지 마쳤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은 컴퓨터로 제작한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말한다.

현대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많은 812개의 판매 대리점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각 대리점의 공간적 한계로 시판 중인 모든 차종을 전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대리점은 규모에 따라 많게는 7대, 적게는 3대 차종을 전시하는데 고객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이번 VR 전시룸 도입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장했다. 적어도 고객이 원하는 차종을 보지도 못하고 구매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VR 전시룸은 전용 안경을 쓰고 각 판매 대리점에 마련된 특정 공간에 들어가면 고

객이 원하는 차종이 가상현실로 등장하는 방식이다. 차의 색상과 옵션까지도 가상현실로 구현할 수 있어 현대차가 판매하는 모든 차종과 색상의 조합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현대차는 고양 모터스튜디오를 포함한 주요 브랜드 체험관에서 VR 전시룸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전국 판매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의 VR 전시룸 도입은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이 공언해온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하는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정 부회장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회사를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경총 “특경법, 기업인 복귀 막아 이중처벌”

최근 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특경법 및 시행령)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8일 법무부에 '특경법 및 시행령'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경법 및 시행령은 배임·횡령 등으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어 유죄를 받은 기업인들이 일정 기간 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개정된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시켰다. 개정법안으로 인해 형을 마친 기업인들은 재직 기업에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

경총은 “기존 시행령의 주된 취지는 범죄의 대가성 취임을 막는 것이었다”며 “이로 인해 취업제한 범위는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준 기업체’로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돼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 기업 복귀까지 제한해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MAKE_금융거래를 더 간편하게 만들고
MORE_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MOST_가장 앞서나가는 혁신적 모바일 서비스

Liiv M, 금융과 통신의 새로운 만남을 시작합니다



* Liiv M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19-1793-1호(2019.10.25) | 광고물 유효기한 2020.04.30까지

***b KB 국민은행**

코스트코 '배짱 개점'... 과태료 1억 된다고 바뀔까

대형 유통업체 5000만원 과태료에도 이행 명령 위반 여전
"숨방망이 처벌" 의견 많아 제재 강화 상생법 개정안 발의
박종찬 정책관 "중복 위반으로 제재뎀 기업 명예 문제 될 것"

사업 조정 권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액수를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개정안이다.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 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분쟁 조정제도다.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생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단체(50명 이상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이 관장에 등록된 단체)가 특정 기업의 사업으로 피해가 우려되면

중기부 장관에게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를 만들어 이를 심사한다. 심의회 풀은 23명(당연직 3명, 위촉직 20명)이며 심의가 열리면 10명(당연직 3명,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가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제도를 이행한 대표적인 예는 '코스트코 하남점'이다.

서울경기동부수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 단체가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한 뒤 중기부는 올해 4월 개정을 보류하라며 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에 '일시 정지 권고'를 했다. 그런데 코

스트코는 권고를 무시한 채 예정된 4월 30일 하남점을 개점했다. 중기부는 상생법에 근거해 일시 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은 코스트코에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스트코는 2014년 세종점, 2017년 송도점 개점 때도 중기부의 이행 명령을 거부한 채 과태료를 냈다.

중기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최대 5000만 원만 내면 개점을 강행할 수 있는 탓에 사업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30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시 정지 이행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에도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다"며 "이에 이행 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중기부도 공감한 결과다.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코스트코의 '배짱 개점'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과태료로는 부족하다"며 "10년씩 징역을 보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어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향해 "현행 5000만 원 과태료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숨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중복으로 어길 시 과태료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관해 "현행안은 한 번을 위반하든 백 번을 위반하든 과태료 최고 액수가 5000만 원으로 있는데 코스트코처럼 이행 명령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처음에는 5000만 원을 부과

받아도 그다음 위반 시에는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를 1억 원으로 상향하더라도 대기업에 미치는 타격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코스트코코리아의 경우 지난해(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 매출액 3조9227억 원, 영업이익 1718억 원을 기록했다. 과태료가 1억 원으로 상향돼도 이는 영업이익의 0.06%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박종찬 정책관은 "코스트코 사례만 봤을 때는 조속지혈일 수 있지만, 이마트24 등 여러 유통대기업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중복 위반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해 부과하면 기업으로서 명예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민 기자 aaaa3469@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로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세계 최대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

"게임하듯 즐기며 외국어 배워봐요
34시간 학습 땀 대학 1학기 수업량"

K-팝·드라마 등 선풍적 인기에
한국어 관심 높아 콘텐츠 확대

전 세계에서 3억 번 다운로드된 세계 최대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듀오링고'가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 강남 신논현역 패스트파 이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듀오링고의 운영부사장 호르헤 마잘은 "한국인들은 언어학수에 높은 열정과 수요를 갖고 있다"며 "한국 시장은 작지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 듀오링고에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듀오링고는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교육 카테고리 세계 최대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는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이다. 전 세계 37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91개 언어 교육코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을 기준으로 전체 공립학교 언어 학습자보다 많은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듀오링고는 2017년 기준 약 1억 8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기업가치는 7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해 약 3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차세대 유니콘 스타트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듀오링고는 게임의 형식을 따라 학습하도록 설계돼 있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을 마치 게임을 하듯 친구와 대결하거나, 혹은 경험치를 모아 상위 리그로 가기 위해 경쟁하는 방식의 구성이다.

듀오링고 측에서는 이 앱을 이용한 학습시간 34시간이 대학교 수업 1학기에 필적하는 수준의 학습량이라고 밝혔다.

마잘 부사장은 "사용자들이 학습량이 적더라도 학습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용자들은 각각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학습목표에 따라 게임을 하듯 즐겁게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호르헤 마잘 듀오링고 운영부사장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듀오링고

전체 콘텐츠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광고를 봐야 한다. 유료로 이용하는 듀오링고 플러스를 사용하면 인앱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다운로드만 오프라인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현재 한국에는 220만여 명의 듀오링고 가입자가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한국어에 관심 있는 해외 거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듀오링고 내 한국어 학습 수요자는 지난해 약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마잘 부사장은 "K-팝과 한국 드라마 등의 선풍적 인기로 한국어가 다른 시장에 비해 성장 속도가 대단히 높다"며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듀오링고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어 시험인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DET)'는 현재 미국 내 500여 개 대학이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공식 채택했다.

"향후 이 시험이 토익과 토플 등 과 밀화된 한국의 영어 능력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마잘 부사장은 "아직은 미국 대학의 영어 능력 인증에 머물고 있지만, 많은 사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추후엔 토익과 토플 등의 시험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KT '기가지니 인사이트'로 AI 플랫폼 선도

2025년까지 AI 단말 1억개 확대 목표... SW 키트 개발
안드로이드·윈도우 등 탑재 가능... 파트너사 단말에 지원

국내 최대 인공지능 단말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KT는 지난달 30일 'AI 컴퍼니'를 선언하며 2025년까지 KT AI 서비스 이용 단말을 1억 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KT AI는 기가지니 인사이트 플랫폼 공개를 통해 '하드웨어형 기가지니'에서 '소프트웨어형 기가지니'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가 AI 플랫폼 '기가지니 인사이트(INSIDE)'를 파트너사 단말에 탑재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가지니 인사이트는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등과 같은 디바이스에 소프트웨어를 탑재 시 바로 기가지니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AI 단말을 만들기 위해 복잡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했다. 하지만, 기가지니 인사이트를 활용하면 클라우드 인공지능(Cloud AI) 플랫폼을 접속해 음성인식부터 서비스 실행까지 처리해주기 때문에 손



백규태 KT 서비스연구소 소장이 AI 기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쉽게 AI 제품을 만들 수 있다. KT는 Cloud AI 플랫폼을 파트너사에 공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기가지니 인사이트 플랫폼은 음성인식, 음성합성, 자연어 처리 등과 같은 인공지

능 기반 기술과 생활비서, 뮤직 등 기가지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파트너사가 KT의 축적된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으로 커튼을 치거나 안마기기를 동작시키는 등 파트너사 제품에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 KT는 안드로이드, 리눅스, 윈도우 등 다양한 단말 운영체제에 탑재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단말 범위도 넓혀갈 예정이다.

기가지니 인사이트는 기가지니 개발자 포털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개발자 포털에서는 기가지니 인사이트 이용을 위한 개발 도구, 가이드, 샘플 소스 등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한다.

기가지니 인사이트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KT 서비스연구소 백규태 소장은 "그동안 KT가 만들어 오던 '하드웨어형 기가지니'가 '소프트웨어형 기가지니'로 거듭나 어디에서나 기가지니를 만날 수 있게 됐다"며 "기가지니 인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개발 파트너사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강소기업 100' 1차 후보군 301개사 선정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부문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강소기업 100' 사업의 1차 대상 기업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1차 서면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301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소기업 100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

맵 중 하나다. 정부는 선정된 기업에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선정된 기업 중에는 부품부문이 43.9%(13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비 30.2%(91개), 소재 25.9%(78개) 순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25.2%(76개), 반도체 20.6%(62개), 기계·금속 15.9%(48개) 등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47.2%(142개), 충남 8.0%(24개), 경남 6.3%(19개) 순으로 나타났다. 선정 기업의 91.6%(A등급 이상 68.5%, BBB등급 23.1% 등)가 기술 평가 BBB등급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와 기보는 이번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심층평가, 대국민 공개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강소기업 100개를 올해 안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중진공·소진공 '혁신성장 구현'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실현, 혁신성장 지원,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현안 공동대응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관 관계자는 "일부 수출규제,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적으로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렵다"며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중진공과 소진공이 더욱 노력하기 위해 손을잡았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에는 △협동조합·정년몰활성화를 위한 협업 인프라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실시와 온누리상품권 구입 장려 △위기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금융·일자리 등 정책지원 협력 강화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과 온라인 수출 지원 △지역 협력 네트워크, 홍보 협력체계 구축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과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쿠팡 꺾을 기회 왔다”...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 사활

홈플러스 소매장 온라인몰 쇼룸화... 이마트 새벽배송 확대 롯데 O40전략 등 쿠팡 투자 주춤한 틈타 사업 확대 쟁점

생존 위기에 내몰린 대형마트의 온라인 사업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커머스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안이한 대응으로 시장 주도권을 내주고 실적 충격까지 겹치자 꺼내든 카드다. 다소 늦었다는 평가 속에도 이번엔 다소 다른 분위기다. 인사 쇄신으로 체질 개선에 돌입한 데다, 때마침 쿠팡의 공격적인 영업 전략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전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몰의 ‘쇼룸’으로 탈바꿈시키고, 대대적인 홍보 공세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마트직송’ 캠페인을 전개해 전국 121개 대형마트 점포 내 주요 동선과 각 매대마다 자사 온라인몰의 배송 경쟁력을 알리는 알림판을 게시한다. 쌀과 생수 등 무거운 상품이 나 채소와 축산, 치킨, 초밥 등 신선식품 상품에 ‘온라인으로 사시라’는 표어를 내건 것이다.

배송 차량에는 공격적인 메시지도 담는다. 홈플러스는 배송차량마다 ‘신선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다. 저 멀리 창고에서 박스째 날아온 것과 집 근처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정성껏 담아드리는

신선함이 과연 비교가 될까요?’라는 문구를 내걸고, 업계에서 유일하게 냉장·냉동·상온 등 ‘3실’ 시스템을 갖춘 신선 배송의 강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는 2021년까지 전국 140여 개 점포에 온라인 물류 기능을 장착하고, 피커(picker, 장보기 전문사원)는 기존 1400명에서 4000명, 콜드체인 배송 차량은 기존 1000여 대에서 3000여 대로 늘릴 방침이다. 온라인 사업 매출을 2019년 1조 원, 2020년 1조6000억 원, 2021년 2조3000억 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3월 온라인 통합 법인을 출범시킨 이마트 역시 최근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6월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새벽배송에 나선 SSG닷컴은 3개월 만에 배송 권역을 서울 성북구와 일산 일부 지역까지 넓혔다. 현재 배송 처리 가능 물량은 일 5000건이지만, 올 연말 김포에 네오 3센터가 완공되면 내년 1월부터 일 1만 건까지 가능해진다.

롯데마트는 그룹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온라인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지난해 8월 롯데이커머스사업본부를 출범한 롯데는



홈플러스는 11일 전국 121개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몰의 ‘쇼룸’으로 탈바꿈시키고 ‘마트직송’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올해 초 통합 앱 ‘롯데ON’을 출범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유통 7개사 오프라인과 온라인몰을 통합한 플랫폼을 장착한 ‘롯데ON’을 본격 오픈해 O4O(Online for Offline) 채널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유통업계가 온라인 사업 확대에 나선 이유는 오프라인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생필품 등 주요 사업 영역이 겹치면서 대형마트는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의 집중 공세에 밀리고 있다.

실제로 쿠팡의 최근 성장세는 위협적이

다. 쿠팡의 올해 연 매출은 지난해(4조 4228억 원)보다 66.5% 증가한 7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증권가가 전망한 올해 롯데마트의 매출(6조4000억 원)보다 1000억 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커머스의 집중 공세에 대형마트의 반격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대형마트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사업 확대 외에도 인적 쇄신까지 동반하면서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최근 6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이갑수 대표를 사실상 경질하고,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을 연구한 배인앤컴퍼니 출신의 온라인 유통전문가 강희석 대표를 영입했다. 롯데 역시 통상 12월 말에 이뤄졌던 임원 인사를 11월 말~12월 초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유통업계의 ‘메기’로 떠오른 쿠팡의 외형 확장이 다소 주춤할 수 있다는 점도 호기로 평가된다. 9월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자기자본비율이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했다며 경영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쿠팡 투자사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이끄는 손정의 회장이 “앞으로 5~7년 내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전펀드의 추가 투자가 불투명해졌다. 쿠팡의 보유 자금이 1~2년 내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시장 침투는 다소 늦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쿠팡이 외형 성장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이는 기존 유통업체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령보서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40돌 롯데백 “공간·브랜드·조직 혁신, 100년 기업 도약”

1층에 테마형 전문관 만들고 프리미엄·효율성 중심 개편

1979년 12월 서울 소공동에 ‘롯데쇼핑센터’를 오픈해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롯데백화점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최근 온라인 시장 확대에 백화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은 공간, 브랜드, 조직문화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해 국내 유통 시장 선두 자리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판매 공간의 일부를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바꾼다. 롯데백화점은 중소형 점포를 중심으로 1층에 테마형 전문관을 도입할 예정이다. 백화점 1층은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닌 문화, F&B 등 다양한 경험요소가 가미된 복합적인 쇼핑 공간으로 꾸며진다.

‘1점포 1명소’ 공간도 선보인다. 1명소의 경우 본점 예비뉴얼 9층 야외 테라스를 오픈형 고객 유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힐링, 여가 등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공간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이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1979년 ‘롯데쇼핑센터’ 개점 모습. 사진제공 롯데쇼핑

롯데백화점은 아시아 최초로 김포공항점에서 ‘주라기월드 특별전’을 진행하며 체험형 공간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주라기 월드 특별전’에는 개장 이후 4개월간 20만 명이 넘는 고객이 다녀갔고, 신규 고객 유입 효과도 보고 있다. 10월 말 기준 김포공항점의 신규 고객

유입률은 67.7%로 다른 점포에 비해 25%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비 양극화 추세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본점을 포함한 주요 점포를 프리미엄 매장으로 개편한다.

롯데백화점 본점이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인 리뉴얼에 들어가며 포문을 열었다. ‘백화점 1층 = 화장품 매장’이라는 공식을 깨고 1층부터 명품 매장으로 변신한다. 2층과 5층에는 각각 여성용 명품 매장과 남성용 명품 매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프리미엄 개편 작업은 잠실점, 부산 본점 등 전국 주요 점포로 확대한다.

특히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15일 강남점에 개점하는 ‘더콘란샵 코리아’는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전략의 하나로, 2021년 오픈 예정인 동탄점 역시 프리미엄 백화점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소비 트렌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 문화도 동시에 바꾼다. 핵심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다. 3월부터 시작한 ‘밀레니얼 트렌드 테이블(MTT)’ 제도는 밀레니얼 세대의 주력인 만 24~39세 사이의 직원을 연구원으로 선발해 3개월간 경영진에 최신 이슈

와 트렌드 등 ‘젊은 문화’를 전수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핵심 고객층인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상품과 공간을 직접 경험, 현업에 적용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직 및 인재발굴 제도에도 변화를 준다. 기존 팀 단위 조직을 프로젝트별 조직으로 바꿔 핵심 인력 관리, 개인 포상 확대 등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꾀할 방침이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지역장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 1~3, 영남, 호남총정 등 5개 지역으로 영업조직을 재편했으며 지역장에게 매장 개편, 예산 등 주요 권한을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유도했다. 앞으로는 책임 경영단위를 점포까지 확대해 브랜드 입·퇴점, 예산, 인력 운영 권한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이사는 “롯데백화점은 1979년 창립 이후 한결같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고객’이라는 것을 마음 속에 담고 있다”며 “4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장차 100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하이트진로 과일리큐르 ‘소주 수출’ 효자로 등극

50여 개국 진출... 年105% 성장

하이트진로가 해외에 수출 중인 과일리큐르 4종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 중인 자몽에이슬, 청포도에이슬, 자두에이슬, 딸기에이슬 등 과일리큐르 4종의 판매가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05%씩 성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소주 수출량 가운데 과일리큐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7%에서 2019년 17.6%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세계화를 위해 국내에서 검증된 과일리큐르 제품을 수출전략 상품으로 삼고 참이슬과 함께 영업활동에 매진해왔다.

과일리큐르의 인기는 동남아, 중화권, 미주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동남아시아 지역이 올해 누적 약 26만 상자(상자당 10L)로 판매량이 가장 많다.

중화권과 미주 지역에서도 과일 리큐르의 판매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중화권 내 과일리큐르의 비중은 2016년 6.4%에서 현재 33.4%로 증가했으며, 미주 지역은 2016년 6.7%에서 현재 21.7%로 늘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과일리큐르의 적정한 도수와 조화롭고 달콤한 맛 덕분에 해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주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과일리큐르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차별화된 프로모션 및 영업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음료에 메시지... ‘스토리텔링’ 마케팅

국내 여행 독려 ‘푸르밀 우유’·지역상생 ‘칸타타 땅콩크림라떼’ 등

“이야기를 팝니다.” 식품업계에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한창이다. 단순한 협업을 넘어 브랜드 정체성을 알리고 제품의 특성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소비자와의 소통이 중시되는 요즘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젊은층의 수요가 많은 음료업계가 관련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푸르밀은 우유로 떠나는 국내 여행을 콘셉트로 한 프리미엄 가공유 3종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프리미엄 가공유는 청도 홍시우유, 여수 석우유, 이천 쌀우유 등 3종이다. 각 지역 대표 농특산물과 우유의 조합을 통해 해당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고픈 욕구를 자극한다.

롯데칠성음료가 올 초 선보인 ‘칸타타 땅콩크림라떼’도 스토리텔링의 대명사다. 이 제품은 제주도 우도면에 위치한 카페 ‘블랑로쎬’의 대표 메뉴를 상품화한 것으로 ‘상생’의 의미가 담겼다. 제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 투표를 거쳐 탄생한 것이



덴마크우유 ‘영화 시리즈’. 사진제공 동원F&B

특징이다. 동원F&B는 스토리텔링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다. 동원F&B의 유제품 브랜드 덴마크우유는 가공유 라인인 ‘덴마크 영화 시리즈’를 통해 커피우유 시장 1위 매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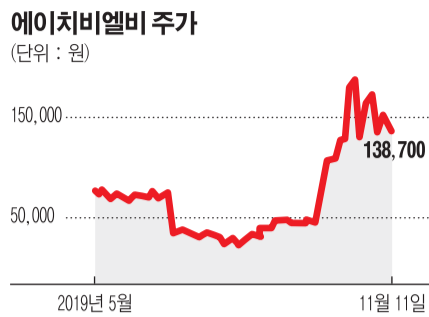
기록하기도 했다. 유럽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담기 위해 동원F&B는 180ml 패키지를 310ml로 키웠다.

2007년 첫 출시된 영화 시리즈는 문학 작품, 영화까지 영역을 꾸준히 확장했다. 마케팅에 힘입어 동원 F&B의 가공유 매출은 5년 만에 40배 이상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와의 소통이 중시되면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제안하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이 주목받는다”며 “단순 협업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공매도의 역습' 에이치엘비 급등에 혼쭐난 증권가

임상3상 성공에 주가 470% ↑ 공매도 베팅 기관투자자 손실 커 국민청원에 '처벌' 글 올려 사과문 발표·본부장 책임 사퇴



에이치엘비의 주가 급등으로 공매도에 베팅한 기관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 공매도로 손실을 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고객들의 항의에 몸살을 앓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에이치엘비 주가는 470.75% 급등했다. 바이오주 임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 대상이던 에이치엘비는 7월 30일 2만3900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임상3상 성공 소식이 전해(10일

만삭스, 메릴린치, 씨티그룹, 크레디트, 씨티그룹 등이 이름을 올렸다. 6개월간 에이치엘비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8164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에이치엘비의 공매도 비중(거래금액 기준)은 평균 8.18%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전체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46%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에이치엘비의 호재는 8월부터 시작됐다. 항암신약물질 '리보세라닙'의 임상3상 결과 발표와 리보세라닙을 다룬 논문이 유럽종양학회(ESMO) 베스트 논문에 선정되면서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 이어 엘리바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크게 올랐다. 투자자들은 거래 위탁을 맡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

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에이치엘비에 대한 공매도에 나서며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타이거자산운용의 경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타이거자산운용은 수십억 원 규모의 에이치엘비 공매도로 전체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2.7%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최근 공식 사과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고객 및 투자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8월에 에이치엘비 공매도를 했는데 해당 종목이 초급등을 하며 손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의 전체 포트폴리오 운용 금액은 3500억 원 수준으로 에이치엘비의 비중은

크지 않다"며 "추가적인 공매도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 우리가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해당 회사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이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공매도는 어려운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펀드 수익률을 지키기 위한 보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케이프투자증권도 최근 홈페이지 본부장이 에이치엘비 공매도로 인한 손실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주의 경우 임상 3상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결과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에이치엘비를 비롯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기술평가 문턱 높아"... 바이오기업 '테슬라 상장' 노린다

투자자 보호 주관사 '푹백옵션' 조건 영업기반 갖춘 적자기업 상장 기회 제테마 입성에 리메드도 IPO 추진

기업명	상장 트랙	진행 상황
올리페스	성장성 특례	9월 상장 완료
라파스	성장성 특례	11월 상장 완료
브릿지바이오	성장성 특례	연내 상장 예정
제테마	테슬라 요건	11월 14일 상장 예정
리메드	테슬라 요건	연내 상장 예정

내 상장 예정이다. 라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테슬라 요건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바이오 기업도 나왔다. 보툴리눔 독신 등을 만드는 제테마는 이 트랙을 통해 14일 코스닥에 상장하고, 연이어 전자약 제조기업 리메드도 연내 IPO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테슬라 상장은 일정 수준 이상 시장 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적자기업이 상장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준 제도다.

이처럼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루트가 다양해진 건 기술성 평가 강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선 거래소가 지정한 2개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시행해 A와 BBB 이상 평가 등급을 받아야 한다.

올해 바이오 기업들이 줄줄이 임상 3상

에 실패하면서 시장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사태로 물의를 빚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당시 기술성 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고, 결국 거래소는 기술성평가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내놨다.

기술성 평가 기간은 현행 4주에서 6주로 확대됐고, 전문평가기관의 현장실사도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어났다. 기술성 평가에서 고배를 마시는 바이오 기업들도 늘어났다. 한 비상장 바이오기업 임원은 "기술성 평가 분위기부터 달라졌다는 얘기가 많다"며 "상장을 앞둔 기업이라면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장성 특례와 테슬라 요건 상장은 모두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관사의 푹백옵션이 따라붙는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정도로 부진하다면 공모가 90% 가격으로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는 조건이다. 푹백옵션 기간은 테슬라 상장 3개월, 성장성 특례 6개월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무자본 M&A공모로 100억 '떡튀' 나노캠텍 전 최대주주 법정 선다

가짜 사업계획으로 주가 띄워

나노캠텍의 전 최대주주가 대표이사 무자본 인수합병(M&A)을 공모해 1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수자금 출처, 주식 담보 대출 등을 허위로 공시한 데 이어 가짜 사업계획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혐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모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 최초의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나노캠텍의 최대주주는 Classical Legends International Limited 외 1인에서 제이앤에스파트너 외 43인(이하 제이앤에스)으로 변경됐다. 총 양수도 금액은 364억7600만 원 수준으로 변경 후 제이앤에스의 지분율은 15.24%였다. 최대주주인 제이앤에스를 주축으로 다수 재무적 투자자가 나노캠텍 인수에 힘을 합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기존 사업에 △여행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더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 제천국제여행사, 골든글로브 국제여행사, 세대국제여행사, 아세아 국제여행사 등을 관계사로 인수하며 신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해당 여행사들을 통해 타이공(중국 보파리상) 수수료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최대주주 측의 자금 출처

다. 제이앤에스는 중국계 한국인을 중심으로 모인 자본이다. 사내이사로는 조선족 진시안텐, 추이룽 등 2명과 한국인 심익호 씨 등 세 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진 씨는 제이앤에스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심 씨는 최대주주 변경과 동시에 나노캠텍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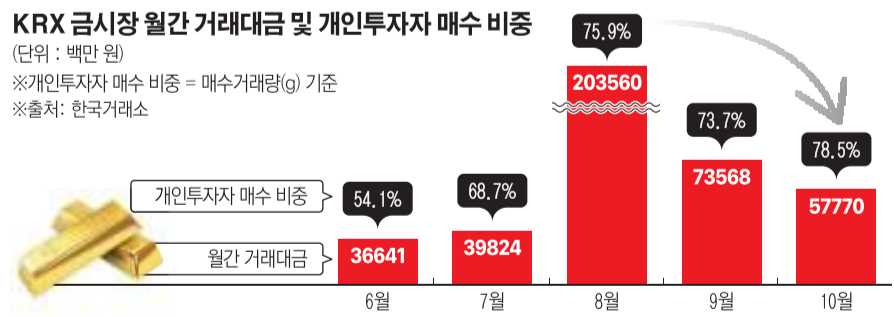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채업자들에게 대규모 대출을 받은 후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사업계획을 발표해 98억 원을 쟁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제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같은해 5월 공시 반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8.5점, 공시위반 제재금 34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됐지만, 제이앤에스 시절 발행한 사채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이앤에스는 나노캠텍 인수와 동시에 복구성 여행사를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해당 사채가 곧바로 시장으로 나온 데 이어 9월에는 상산인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권이 실행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이정희 기자 ljh@

무역분쟁 완화 전망에 금펀드 투자자 '한숨'

금값 8월 고점 대비 12% 떨어져 3개월 평균 수익률 -1.93%



은 빛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4.14%, 코스닥 지수는 29.79% 하락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불을 지폈다. 이에 갈 곳 잃은 돈은 금사재기로 몰렸다. 올해 6월 366억4100만 원, 7월 398억2400만 원 수준이던 월간 거래대금은 금값이 고점을 형성한 8월 2035억6000만 원으로 치솟았다. 전월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급격히 몰렸다. 매수 전체 비중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월 54.1%(38만4414g), 7월 68.7%(50만9899g)에서 8월 75.9%(256만173g)로 급격히 늘었다. 반면 8월 개인의 매도 비중은 27.5%에 불과했고, 실무사업자(57.4%)와

기관·외국인(15.1%)이 대거 팔아치웠다. 9월 하순부터 금값이 약세를 보이며 개인투자자들은 쪽지에 물린 셈이 됐다. 10월 초 미·중이 '스토폴'을 통해 1단계 합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무역분쟁이 완화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해졌다.

금값이 출렁이자 고공행진하던 금펀드 수익률도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8월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 금펀드(12개)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1.93%다. 같은 기간 8월의 금펀드 '사자' 영향으로 설정액은 369억 원이 순유입된 상태지만 최근 한 주만은 60억 원이 순유출됐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미·중 무역협상 진전으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하늘 높이 치솟던 금값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10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한 8월 대거 금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1g)은 8월 5만481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62%(900원) 하락했다. 8월 13일 고점(6만1300원) 대비로는 11.84% 떨어진 수치다.

금값은 올해 4월 15일부터 8월 고점까지 우상향 행보를 보이며 3개월 만에 29.54% 올랐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 가치가 오르자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금 가격에 원달러 환율을 곱한 뒤 여타 수급 요인 등을 반영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에 먹구름이 짙게 깔릴수록 금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36,000	3,100 (0.9%▲)	모네로	73,100	200 (0.3%▲)
리플	320	-4 (1.2%▼)	비트코인골드	10,040	145 (1.5%▲)
라이트코인	72,100	-1,400 (1.9%▼)	이더리움 클래식	5,765	-45 (0.8%▼)
대시	81,850	850 (1.0%▲)	퀀텀	2,464	-31 (1.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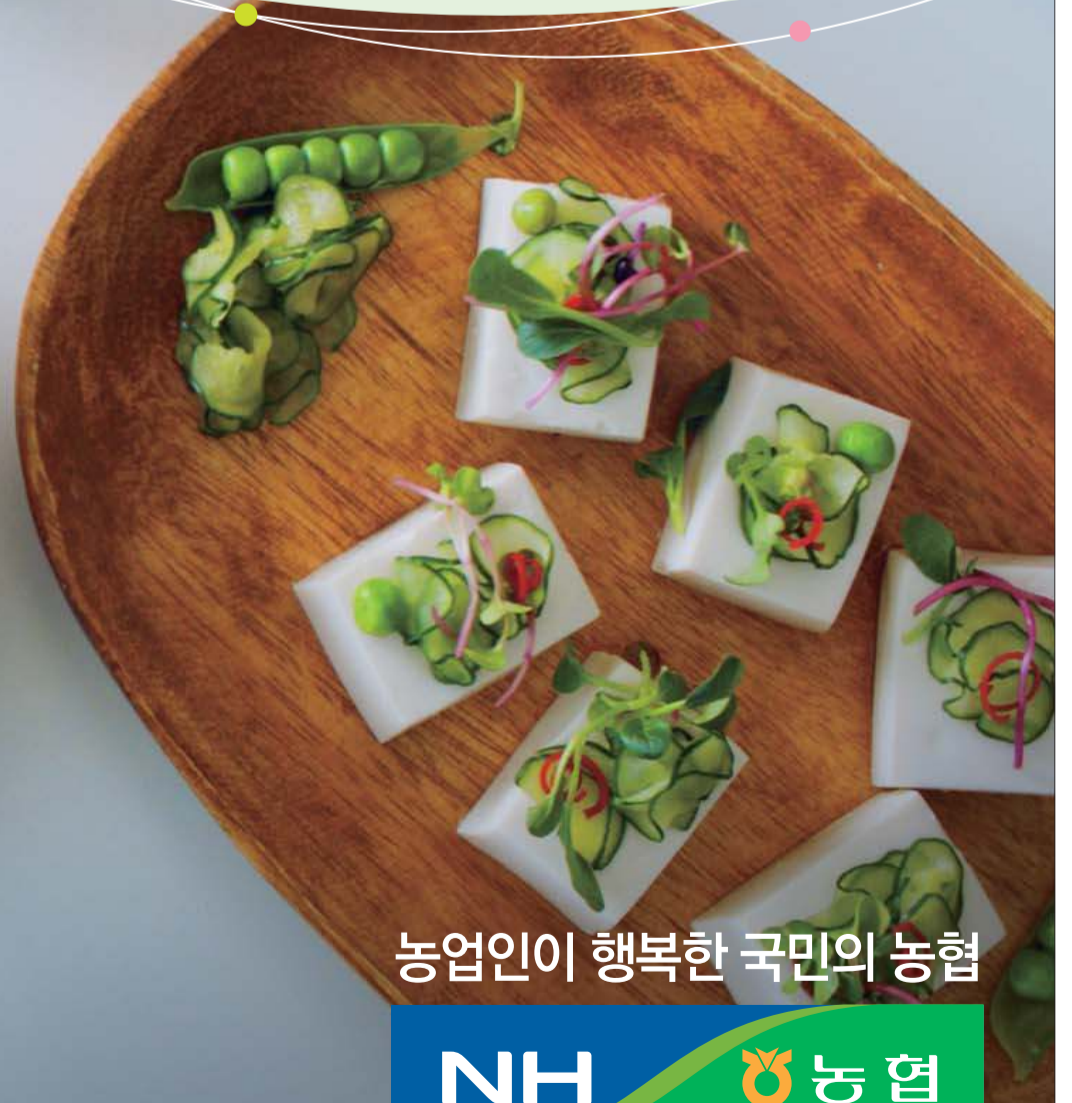


농업·농촌·농협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트렌드

매일 밥상 미식회

좋은 식재료로 요리의 즐거움을 누리고
365일 집에서 미식을 즐기는 시대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농·축산물로
식탁의 즐거움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오늘의 생활미식
**뭐든지다
돼지고기**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우리 돼지고기!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잠올아' 입주권 두 달 새 2억 올라... '훈풍' 부는 풍납동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그동안 저평가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맞물려 '썩' 첫 문턱 넘는 '미성' 호가 1억 올라 내년 안전진단 목표 재건축 '속도'

서울 강남권 한강변 입지에도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묶여 저평가받았던 송파구 풍납동 주택시장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입주를 코앞에 둔 새 아파트는 신축 선호 현상에 입주권 시세가 두 달새 수억 원 치솟고,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통과한 한강변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가 1억원 가까이 뛰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입주하는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풍납 우성아파트 재건축 단지) 전용면적 59㎡짜리 입주권은 지난달 12억8435만 원에 팔렸다. 8월 11억843만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두 달 만에 2억 원 가까이 프리미엄(웃돈)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입주권 시세 (단위: 원)

분양 당시 가격	현재 시세
59 일반분양 몰량 없음	13억~13억5000만
75 7억9780만~8억4040만	14억5000만
84 8억5210만~9억6900만	16억~16억5000만



인근 아파트 가격대 (단위: 원)

강변 현대 83㎡		
7월	8월	현재 시세
6억5850만	6억7000만	7억
극동 아파트 80㎡		
상반기	9월	현재 시세
7억3000만~7억9000만	8억2800만~8억5000만	9억5000만~9억9000만
극동아파트 59㎡		
7월	8월	현재 시세
7억1000만~7억2500만	7억2600만	7억5000만



를 마쳤다.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가 예비 안전진단에서 퇴짜를 맞았고,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부터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파트가 낡았다더라도 구조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미성아파트는 재건축 첫 관문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내년 정밀안전진단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풍납동이 문화재 보존구역이라는 점에서 미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의미가 크다. 풍납동 문화재 보존구역은 크게 6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4권역은 미성아파트를 포함해 한강극동·현대리버빌·현대·동아한가람 등 아파트가 조성돼 있지만 이미 문화재 층이 유실됐을 것으로 판단해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성아파트 매물은 이미 자취를 감췄다. 풍납동 B공인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집주인들이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 물건을 내놓지도 않을 뿐더러 내놓았던 물건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며 "당분간은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붙었다. 현재 시세는 13억 원 수준이다. 전용 75㎡와 84㎡짜리 입주권 시세도 각각 14억5000만 원, 16억~16억5000만 원 선에 형성됐다. 분양 당시보다 6억~7억 원 가량 오른 것이다. 인근 P공인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입주를 앞두고 대기 수요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해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풍납동 한 공인중개사는 "풍납동은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데다 올해 상반기까지 12억~13억 원대였던 인근 파크리오 전용 59㎡ 시세가 최근 15억 원을 넘었다"며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가 파크리오보다는 입지가 떨어지지만 신축 아파트여서 일부 집주인들이 파크리오의 같은 평형대와 가격 이 맞춰질 때까지 매도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풍납동 미성아파트 매매가도 한 달 새 수천만 원 올랐다. 현재 이 아파트 전용 117㎡ 시세는 9억5000만 원대로 지난달 실거래가(8억7000만 원)에서 무려 8000만 원이 뛰었다. 미성아파트는 평균 34년 차 아파트로 지난달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 예비안전진단은 재건축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으로 가는 직전 단계다.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맞은 편에 있는 극동아파트 전용 80㎡ 매매가는 9억5000만~10억 원 선으로 한 달 전보다 2000만 원 정도 올랐다.

최근 서울 재건축 대장주들은 재건축 사업의 첫 문턱인 안전진단에서 잇따라 고배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HUSIM

손목이 육신거린다

손이 잘 붓는다

손이 늘 차갑다

하루 종일 칼질 요리사

손이 자주 저리다

키보드 마우스 직장인

하루 종일 핸드폰 학생

끝없는 집안일 주부

손가락이 뻣뻣하다

손 사용이 많은 미용사

손가락이 아프다

지금 당신에게는 휴심 손마사지가 필요합니다

매일 매일의 관리가 건강한 손을 만들어 줍니다. 하루의 손 피로, 휴심으로 바로 푸세요.

믿을 수 있는 품질, 신뢰받는 서비스 - 휴심 아담 핸드케어

- ✓ 원하는 부위 지정 관리 마사지기 앞쪽이 개방되어 있어 손가락, 손바닥, 손등, 손목까지
- ✓ 손으로 주무르는 것처럼 3가지 강도와 성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원한 강력 공기압 에어백
- ✓ 혈자리를 찾아 꼭꼭 수지침 지압법과 동일한 휴심만의 특허 마사지 방식
- ✓ 차갑고 시린 손에 딱 온열 마사지가 가능한 히터 기능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마사지
-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이 쉽고 자유로운 간편 버튼, 가벼운 무게, 무선 충전 방식
- ✓ 업그레이드된 지압효과 내부 엠보싱 내피천 적용으로 손등까지 빈틈없이 누리는 지압
- ✓ 플라즈마 기능 탑재 마사지기 내음이온, 양이온이 함께 발생되어 손 살균 작용에 도움

품 명 : 아담핸드케어
 모델명 : MD-5508W
 전 력 : 7.5W
 전 압 : 100~240V / DC5V / 1.5A
 중 량 : 700g
 크 기 : 250X150X108(mm)

온열기능

강력 공기압

수지침 효과

팔목 지압

간편 버튼

충전 무선방식

가벼움

지압 집중

플라즈마 기능

49,000원 X 3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

온라인 주문 www.arambi.kr
 휴심(한양대학교) · 제 2014-서울중구-0065호

아람비스토어

전문전화 **080-470-8888**

10월 전국 경매 최다 응찰자수 상위 3곳 ※출처: 지지옥션

지역	단지명	감정가	낙찰가	낙찰가율	응찰자수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	불당이안	3억4000만 원	4억3596만 원	128%	59명
충남 천안 서북구 차암동	천안스마일시티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억4600만 원	2억3678만 원	96%	50명
대전 서구 둔산동	국화	2억7800만 원	2억7492만 원	99%	43명

대전 부동산 광풍 효과? 천안 경매시장도 '후끈'

지난달 응찰자 전국 상위 1·2위 '불당 이안' 낙찰가율 128%로 치솟아

충청권 아파트 3곳을 두고 경매시장에서 뜨거운 입찰 경쟁이 벌어졌다. 응찰자가 50명 안팎으로 몰리는 가하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높게는 130%까지 치솟았다. 경매물건의 개별적 호재 영향이 컸지만 대전 집값 급등세가 인근 지역 경매시장 동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 이안아파트 경매 물건에 59명이 몰리며 전국 최다 응찰자수를 기록했다. 2위와 3위는 천안 서북구 차암동 천안스마일시티 효성해링턴플레이스와 대전 서구 둔산동 국화아파트가 차지했다. 응찰자 수는 각각 경매 물건당 50명, 43명이었다. 한 달간 최다 응찰자를 기

록한 경매물건 상위 3곳을 모두 충청권 아파트가 휩쓸었다.

특히 불당 이안아파트의 경매 물건은 전용면적 85㎡로 감정가(3억4000만 원)보다 1억 원 가까이 비싼 4억3596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무려 128%다. 천안스마일시티 효성해링턴플레이스와 대전 국화아파트 역시 각각 2억3678만 원, 2억7492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00%에 육박한다.

천안 아파트 두 곳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이처럼 치열해진 데는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와 산업단지 배후수요 영향이 컸다. 여기에 가파른 대전 집값 상승세가 천안 등 충청권 거점도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충남 아산시에서 분양한 '당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2차'는 평균 88.5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남 천안·아산시 일대 최고 경쟁률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포스코건설 시공사로 선정

포스코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8차 아파트 337동 재건축 단지 시공사로 선정됐다. 11일 정비업체에 따르면 신반포 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은 최근 포스코건설을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합과 포스코건설은 23일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후, 연말께 재건축 추진을 위한 수의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수의계약이 성사되면 조합은 세 번째 도전 만에 시공사 선정에 성공하게 된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반포 18차 337동은 현재 지상 13층 건물에서 지하 2층-지상 33층 건물로 탈바꿈한다.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없이 현재와 비슷한 가구 수(182가구)로 새 아파트를 짓는 1대 1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박종화 기자 pbell@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중형

文 대통령 합성사진으로 투자자 현혹... 1심서 징역 16년

가상화폐 발행을 미끼로 수천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의 대표이사과 간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석정(53)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씨와 신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팀장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9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액수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재화 수단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 등을 매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했다”면서 “대규모 사기 범행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고 가정을 파

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솔파코인 등 3개 코인 패키지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았다. 코인업은 솔파코인을 구매하면 투자 자금으로 무동력 발전기 생산과 판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켜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며 합계 736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던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코인업은 동대문과 중국 푸르둥하이(북여동해)에 월드환전센터를 설치해 자체 개발한 월드환전코인(WEC)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와 수리 사업을 하는 A사의 결제시스템에도 WEC 코인이 사용될 예정이라며 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 등은 4~10주 패키지 투자자들은 각각 125~200%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만3382회에 걸쳐 총 4308억9250만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코인업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씨가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돼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업은 해당 잡지 4000부 발행에 대한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진을 잡지 표지에 게시했다.

강 씨는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 직급으로 구분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일정 매출액을 달성해야 하는 등 목표를 설정해 피라미드 유사 조직을 만든 혐의도 포함됐다. 투자원금 대비 직급에 따라 각각 0.2~15%의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직급 구도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5에 게재됐습니다



수능 문제지, 전국 시험장으로 2020학년도 대입수학능력 시험일을 사흘 앞둔 11일 오전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전국으로 배부될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차례에 옮겨 실고 있다. 뉴스스

檢, 정경심 교수 14개 혐의로 기소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개 추가... 조 전 장관 이름도 명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강제수사 수사에 돌입한 지 76일 만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기존에 알려진 혐의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개 혐의가 새롭게 더해졌다. 공소장 분량만 79장에 달한다. 조 전 장관과 딸의 이름도 공소장에 함께 기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근)는 구속 만료일인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금융실명법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앞서 기소돼 재판이 시작된 사문서 위조까지 합치면 정 교수는 총 15개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검찰은 입사비리와 관련해 지원자인 딸, 사모펀드 비리 조범동 씨, 피고인 동생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정경심 교수 범죄 혐의 내용

자녀 입시 비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허위 수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증거인멸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증거인멸 교사
사모펀드 투자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사고차량 도로에 방치, 도로교통법 위반”

대법 “교통 방해”... 파기환송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자신의 차를 현장에 두고 떠난 운전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현장에 둔 채 귀가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차량에 붙여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이 씨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14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했고, 경찰관

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았고, 연락처를 남긴 점 등을 근거로 이 씨가 도로교통법 148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가 148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해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STORY 인생茶 한 잔 하실래요?

PART1 차 입문 - 차근차근, 차의 세계에 다가가기
 PART2 차의 진실 - 신아초 전문가 전문회와 다담(茶談)하다
 PART3 맛을 차 분석 - 취향 저격, 내게 맞는 차 고르기
 PART4 체질별 한방차 - 내 몸이 차를 좋아하지는 건강 한 모금
 PART5 캠핑 체형 1박 2일 - "평주와 다비(茶道)를 까요"
 PART6 힐링 찾길 순례 - 차 맛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낸 명소 5곳5색

더불어 숲
호수를 담은 마음으로
언지 못할 사랑이 있더라

귀촌
인생의 쓴맛 안엔 보약도 들어 있다
애석한 사실 하나 귀찮고 그의 귀촌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귀촌 7년 차 농사도 살림도 어떤 자리 잡힐 만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문기(문)씨는 아직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자나 깨나 전원을 울리는 것 같다. 화살을 쏘았으나 여태 과녁에 도달하지 못했다. 속사정을 모르는 남들은 일쑤 '귀농우수사'로 치지만, 사실은 슬며 시련에 가깝다는 게 아닌가.

신라비가 만난 사람

김현식이 그려온 11월에는
빙하기 싫어 공언해요!
원더그라운드 전설,
신촌블루스를 만든 남자 '김현식'

천문과 현미를 위한 창작으로
윤영희 예술세계를 수놓다
실그림 아티스트
신인숙 작가

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죠!
특수목적
김종조

타면타면 산책 청리언덕 넘어 김광석골목까지,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대구 청리언덕으로 가는 길에 기국 동우생각을 증명했다. '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리언덕 위에 백합 필 적대하는 한나리꽃 향내 맡으며...' 어릴 적 배운 노래인데도 노랫말이 또렷이 떠올랐다. 우레와 같은 노래를 묘사한 백합골목을 차차 아늑한 언덕이 나타났다. 청리언덕은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다웠다.

고고가게
지하철로 떠나는 오래된 맛집, 이용하야 고고가게를 지난 5월에 걸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으로 나눠 총 6곳을 소개했다. 맛과 추억, 음식 냄새와 사람 냄새가 풍겨올만큼 피아오르던 그곳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려 한다. 그동안의 여성을 조명하며, 특별히 해외 독자들과의 친목을 위한 영문 버전도 함께 준비했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암과 노화 예방에 좋은
녹차 활용 레시피

상속과 증여 알아보기
김성우 변호사
기업승계
최신 트렌드와 전략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장지·강일 차고지에 공공주택 1800가구”

김세용 SH 사장 ‘버스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발표 서울시 3980억 투입 공원 등 갖춘 ‘콤팩트시티’ 조성 청년·신혼 맞춤형주택 2024년 입주... 차고지는 지하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 스마트 차고지, 주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청신호(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을 동시에 만족시키겠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장지·강일 버스공영 차고지 입체화 사업’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 차고지(2만5443㎡)와 강동구 강일 버스공영 차고지(3만3855㎡)를 공공주택·생활SOC·공원이 어우러진 ‘콤팩트시티’로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사인 SH공사는 기존 야외 차고지는 지하화하거나 실내 차고지 형태로 바꾸고,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1800가구(장지 840가구·강일 965가구)와 생활편의 시설, 공원 등을 건립한다. 서울시는 이

를 위해 사업비 약 3980억 원을 투입한다.

김 사장은 “장지 차고지에 2057억 원, 강일 차고지에 1923억 원이 소요된다”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후 국제설계공고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 차고지가 31개 있는데 모두 도시 외곽에 만들어져 지금은 주택단지로 둘러싸여 있다”며 “강일과 장지 차고지는 매연, 소음, 빗공해 등의 문제와 열악한 업무 환경으로 주민·종사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차고지를 지하화할 경우 우려되는 매연·소음 문제에 대해 “영향이 꽤 크겠지만 차고지가 야외에 있는 것보다 줄어든 것”이라며 “여러 기법을 통해 문제를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빗공해 문제의 경우 “(건물화보다는) 지하화가 좋다고



11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서울시장 브리핑룸에서 열린 장지·강일 버스 차고지 입체화 사업 기자설명회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보지만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다양한 생각을 받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강일·장지 야외 차고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와 근무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냉·난방, 환

기 설비가 갖춰진 건물에서 주차·정비·세차 등 일상 차고지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각종 센서를 활용한 첨단 방재시스템을 도입한다. 버스 차고지 종사자의 사무·휴게공간도 확충한다.

청신호 1인 주택(70%)은 20㎡, 2인 주택(30%·신혼부부용)은 39㎡로 기존보다 3.3㎡(1평) 더 넓은 평면을 제공한다. 1인 가구 주택의 경우 ‘빌트인’ 방식을 도입하며 공유차,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주방 같은 다양한 공유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차고지 상부 공간 절반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집 앞에서 휴식, 여가, 놀이,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테마형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생활SOC는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은 물론 창업·일자리 관련 시설, 판매시설도 도입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5에 게재됐습니다



김장쓰레기 어떤 봉투에 버려야 하나

25개 자치구별 배출법 안내

서울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은 가운데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이 기간에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21개 자치구 이외 양천·송파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 시 김장 쓰레기 전용봉투를, 서대문·영등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 기간, 사용 가능한 종량제 봉투 규격, 김장 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 방법이 다르므로 배출 방법을 꼭 살펴봐야 한다.

동작구는 12월 15일, 중랑구·강북구는 12월 20일까지다. 성북구·강서구는 12월 22일, 동대문구·노원구는 12월 25일, 도봉구는 12월 27일까지다. 나머지 자치구는 12월 31일까지이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중 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는 20ℓ 봉투에, 구로구·금천구·동작구는 20~50ℓ 봉투에, 마포구는 10ℓ 이상 봉투에, 성동구·중랑구·노원구는 모든 용량의 봉투에, 나머지 자치구는 20ℓ 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동작구, 서울 자치회관 평가서 8년 연속 우수

동작구는 ‘2019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구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자치회관 운영평가는 서울시가 주민자치 발전기반 조성과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다.

평가는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 △자치회관 시설·활용 △지역 자원 연계 자치회관 운영 및 도농 교류 등 기타 운영사항 △자치회관 운영 개선 사례 등 4개 분야 8개 항목에 걸쳐 서면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으로 진행됐다.

동작구는 “사당2동과 신대방1동의 우수

사례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당2동은 △환경, 청소년, 법률 분야의 주민 교육프로그램 ‘사이마을 아카데미’ △마을의 정보·활동사항을 알려주는 ‘사당2동 소식샘’ 발간 △벚꽃축제와 여름축제 등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는 마을’ 사업을 펼쳐 주민 화합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신대방1동은 함께하는 다문화 마을 ‘다(多)가치 상생 프로젝트’로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멘토-멘티 사랑의 김치 담그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함께하는 초등 학생 방과 후 활동 △다(多)가치 페스티



지난해 신대방1동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진제공 동작구

발’ 등을 진행해 문화적 차이, 상호 이해 부족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했다.

동작구는 우수상 시상금을 자치회관 시설과 장비 개·보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주민의 활동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강동구, 교통사고 주민에 구민안전 보험금 첫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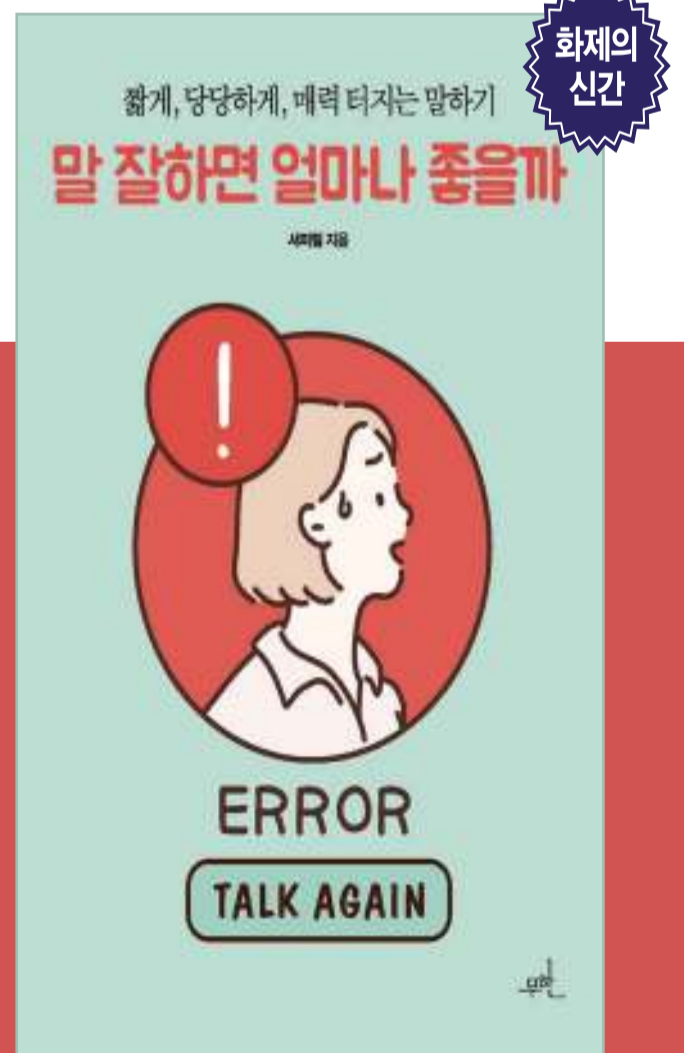
서울 강동구가 구민안전 보험제도 실시 이후 처음으로 구민안전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강동구는 지난달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도의 효용성이 증명됐다고 11일 밝혔다.

강동구는 1월부터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 보험제도를 실시해왔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등이다. 강동구민은 1인당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진희 기자 jh6945@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을 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한 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말하기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D컷 핸들’로 섬세한 코너링, 레이싱카 부럽잖네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2019 하반기 트렌드

자동차에 부는 유행은 가장 민감한 디자인을 시작으로 기술적인 요소까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자동차 회사가 얼마만큼 그 시대의 유행을 빠르게 뒤쫓거나, 오히려 선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컨대 차 겉모습을 디자인하는 스타일러는 자기 눈에만 멋지고 마음에 드는 차를 그려내면 안 된다. 그 시대의 흐름을 예측하고 분석해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차를 디자인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

상품기획담당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유행보다 몇 년 뒤에 유행할 자동차의 유행을 미리 가능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2019년 하반기를 주름잡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최신 유행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왜 운전대를 잘라놓은 거죠? = 요즘 동그란 ‘스티어링 휠’이 사라지고 운전대 아랫부분을 반듯하게 눌러놓은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른바 ‘D컷 스티어링 휠’이다.

D컷 운전대의 시작은 레이싱 서킷에서 출발했다. 최근 서킷을 달리는 경주용 차들 대부분이 상황 평준화된 성능을 지니고 있다. 결국 레이스 결과는 코너와 코너를 얼마나 빠르고 매끄럽게 빠져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드라이버의 정교한 핸들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D컷 운전대는 코너링을 위해 탄생했다. 반듯하게 잘린 부분을 손으로 잡으면, 코너의 진입과 탈출 각도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 대중차에도 이런 D컷 운전대가 장착되고 있다. 레이스를 위한 것이 아닌 ‘레이싱 DNA’를 심어 놓은 경우다. 고성능 레이스카는 아니지만 레이스카 처럼 보이기 위한 디자인 터치다.

◇대시보드 위를 떠다니는 내비게이션 모니터 = 요즘 디스플레이 모니터는 대시보드를 박차고 나오는 게 유행이다.

한때 대시보드 안쪽에 심어 넣는 이른바 ‘인-대시’ 방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슛구쳐 오른 모니터가 대세다. 전자기술이 발달하면서 화면이 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런 디스플레이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1 소프트 터치 방식의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 운전대
2 LED 감성 무드램프가 적용된 아우디 자동차 인테리어
3 8세대 ‘쏘나타’의 버튼식 변속기
4 레이싱카 모티프 ‘D컷 스티어링 휠’

특 튀어나온 플로팅 모니터 카인포테인먼트 조작 용이 버튼·다이얼 타입 변속기도

있도록 돌출형이 등장했다. 이른바 동등 떠다닌다는 의미를 담아 ‘플로팅 타입 모니터’라고도 불린다. 이른바 아웃-대시 방식인데 최근에는 그 크기가 커지면서 ‘플로팅 타입’이라고 불린다.

나아가 단순하게 크기를 키우고 대시보드 바깥으로 슛구쳐 나온 게 아닌, 계기판과 하나로 엮이는 방식도 유행이다. 메르세데스-벤츠가 MBUX라는 이름으로 유행을 리드했고, 현대차 역시 발 빠르게 이런 방식을 뒤쫓고 있다.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기어봉 = 기어봉의 정확한 명칭은 ‘시프트 노브’ 또는 ‘시프트 레버’가 맞다.

최근 등장하는 신차들은 전진과 후진, 주차를 결정하는 시프트 레버가 사라지고 버튼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국산차 가운데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팰리세이드가 이런 방식을 먼저 썼고 최근에는 8세대 쏘나타와 조만간 등장할 6세대 그랜저 부분변경 모델도 시프트 레버 대신 버튼 방식이다.

그동안 시프트 레버는 변속기를 움직이면 그 아래에 달린 쇠줄(와이어)이 변속기를 직접 움직였으나 최근에는 전자 신호를 주는 게 전부다.

최근 변속기 레버는 물리적인 힘으로 직접 변속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리모컨 역할을 지닌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굳이 둔탁하고 몽푹한 기어 레버를 차 안에 꽂아놓을 이유도 사라졌다. 결국 스포츠성을 강조한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 변속기 레버 대신 변속 버튼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차가 글로벌 시장에 이런 변속 버튼을 선보인 지 오래다. 영국차 재규어는 변속 버튼이 아닌, 동그란 다이얼을 돌려가며 전진과 후진을 결정하기도 한다.

◇아직도 버튼 누르시나요? = 이제 막 유행을 시작한 이런 버튼 기능조차 조만간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이제 물리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

손끝 터치로 실내등 조절 LED 감성 램프 소형차 확대 에어벤트도 작고 슬림해져

니라 손가락으로 버튼을 스치거나 살짝 터치하는 것으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감성품질을 키우는 방식이다.

이런 터치 방식의 작동은 2000년대 초 재규어가 전체 제품군에 확대 적용하면서 유행이 시작했다. 예컨대 실내등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램프 근처에 손가락을 스치듯 지나치면 램프가 켜지거나 꺼지는 방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버튼이 사라지는 추세다. 이른바 터치 타입이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골라 누르는 방식처럼, 자동차에 달린 모든 스위치가 하나둘 터치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일부 고급차에서 시작한 만큼, 조만간 일반 대중차에도 누르는 버튼 대신, 스쳐도 작동하는 버튼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중반,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급 모델 S-클래스는 실내에 은은한 LED 램프를 들렸다. ‘엠비언트 라이트’다. 왼쪽 도어에서 시작해 운전석과 대시보드를 휘감는 램프는 다시 반대편 도어까지 스며들며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실내 곳곳에 파고든 LED 감성 램프 = 고급차를 상징했던 LED 감성 무드램프는 최근 소형차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 변형과 함께 LED로 또 하나의 디자인을 새겨넣는 방식인 셈. 이른바 ‘라이팅 아키텍처’ 가운데 하나다.

실내에 시원한 에어컨과 따뜻한 히터 바람을 내뿜는 ‘에어벤트’ 역시 작고 슬림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자동차 디자인이 얇은 에어벤트를 원했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공기 송출구를 얇게 만들면, 조금만 풍량을 확대해도 소음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에어벤트를 얇게 만들 수 있게 됐다. 소음은 줄이면서 차 안에 다양한 장비를 채워 넣을 공간도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차가 속속 도입 중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소형차 새 기준’ 8세대 골프... 최신 유행 다 모았다

‘디지털·직관성의 부활’ 명제로 스포티 감성 D컷 핸들 아웃대시 모니터·토글 변속기·슬림 에어벤트 등 적용



폭스바겐 8세대 골프

소형차의 교과서 격인 독일 폭스바겐 골프가 8세대로 거듭났다. 2012년 7세대가 처음 공개된 이후 7년여 만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골프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컸던 만큼, 지난달 25일 독일 본사에서 열린 새 모델 공개 행사에 전 세계 언론이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행사장에 나선 헤르베르트 디이스(Herbert Diess) 폭스바겐그룹 회장은 “지난 45년 동안 골프는 전 세계 시장에서 3500만 대 이상 팔린 가장 성공한 모델”이라며 “새 골프가 제시할 새로운

기준에 대해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새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소형차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왔던 주인공이었던 만큼, 8세대 골프는 ‘디지털과 직관성의 부활’이라는 명제 아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폭스바겐그룹 회장의 말마따나 8세대 골프는 이 시대 소형차가 지닐 수 있는 최신 유행을 모조리 풀어담았다. 무엇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디지털화를 이룬 덕에 실내 곳곳에 최신 유행이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먼저 5세대 골프 GTI 때 처음 등장했

던, 스포티한 감성의 이른바 ‘D컷’ 형태의 운전대가 8세대까지 오롯이 이어졌다. 여기에 골프 역사상 처음으로 플로팅 타입의 아웃대시 모니터를 대시보드 위에 얹었다. 구형이 된 7세대 골프는 높이 높은 대시보드 탓에 “기슴팍을 짓눌리는 것 같다”는 불평이 많았다.

요즘 유행에 맞춰 변속기 레버는 없었. 아니 없었대기보다 꽤 작은 사이즈로 바꿨다.

8세대 골프는 변속기 레버가 작고 양쪽 맞은 ‘토글’ 방식 스위치로 변했다. 손가락으로 조절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를 위아래로 누르면서 △전진 △후진 △파킹 모드를 바꿀 수 있다.

평범한 해치백부터 고성능 버전까지 여러 영역을 아울러야 하는 만큼, 버튼방

식과 레버방식의 중간쯤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커다란 변속기 레버가 사라지면서 실내 공간은 한결 여유로워졌다.

이밖에 도어와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LED 무드램프 역시 최신 유행 그대로다. 여기에 이제 폭스바겐 인테리어의 특징으로 거듭난 ‘슬림형 에어벤트’도 대시보드 위에 나란히 심어 넣었다.

폭스바겐 디자인 총괄 클라우스 비숍(Klaus Bischoff)은 신형 골프 공개 행사를 통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환경에서도 운전자는 새 골프를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8세대 골프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디젤 등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김준형 기자 junior@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WON 하는대로 우리 WON 뱅킹



깔끔해진
메인 화면



확 줄인
상품 가입 단계



찍어서 납부하는
공과금



말로 처리하는
보이스뱅킹



흔들면 바로가는
모션뱅킹



딱 맞는
상품 안내

원터치개인뱅킹은 11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됩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우리WON 뱅킹을 만나보세요!

WELCOME EVERY WON

기간: 2019.09.09(월) ~ 11.30(토) / 당첨자 발표: 2019.12.10(화)

우리WON뱅킹
상품가입 이벤트

경품 노트북, LG프라임, 신세계상품권 등

우리WON뱅킹
WON통장만들기 이벤트

경품 영화티켓 (매일 400명 한정)

우리WON뱅킹
로그인 이벤트

경품 커피쿠폰 (매일 400명 한정)



우리WON뱅킹
다운로드하기

* 이벤트는 은행 영업시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64-9000)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0번도 참조. * 우리은행은 전자 특약 문자를 통해 '대행결제'로 결제된 금액을 입금 시, 통 요구하지 않습니다. * 2019.10.09. 현재로서만. * 기타 설명(우송)만 2019년 11월 30일

하나금융, 연말·연초 봉사나눔 '모두 하나데이 캠페인' 스타트

“행복한 금융 실천, 사회적 가치 창출”

함영주 부회장·계열사 임직원 박승 사회공헌위원장 등 참여 첫 행사로 '사랑의 김장 나눔' 두 달간 릴레이 봉사활동 전개



함영주(왼쪽에서 세 번째)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박승(다섯 번째) 사회공헌위원장, 손병욱(일곱 번째) 사회공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명동 사옥 앞에서 다문화 이주 여성, 가족사랑봉사단원과 함께 '사랑의 김장'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

“하나금융은 ‘소셜벤처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열린 ‘모두 하나데이 캠페인’ 개막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2011년 시작된 이 캠페인은 계열사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나눔 대축제이다. 지난 1년간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돌이켜보고,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는 두 달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금융을 실천한다.

하나금융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이루기 위해 저소득·빈곤·청소년·다문화 등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100개의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사회혁신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

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선포식을 했다. 직장어린이집 개원 등 보육사업을 통해 이뤄낸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함 부회장을 비롯해 박승 하나금융 사회공헌위원장,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배성우 롯데제과 커뮤니케이션 부문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원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펼쳐 온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 가치를

수치로 보게 되니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 활동인지를 새삼 느꼈다”며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 이후에는 임직원들이 모여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도 했다. 롯데제과는 보육 시설 어린이들에게 줄 빼빼로 과자를 후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섬유의 날’ 기념식...김규영 효성 대표 금탑산업훈장

김성열 슈퍼리어 부회장 ‘은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1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기리는 ‘섬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섬유의 날은 1987년 11월 11일 섬유·의류업이 제조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가 33회째다.

이날 행사에서는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계 종사자 51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김규영(왼쪽 사진) 효성 대표이사는 29년간 기술개발 및 생산 안정화를 통해 스판덱스 및 타이어코드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위로 이끌어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500여 개 국내 협력사로부터 1조 원 상당의 직물을 구매하는 등 국산

원자재 사용을 확대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는다. 김성열(오른쪽) 슈퍼리어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골프웨어를 론칭하는 등 패션의류 품질 고급화에 이바지하였으며, 국산 사용비율 80% 이상으로 국내 섬유 스트림 간 상생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박갑열 영텍스타일 대표이사와 안성권 진성글로벌 대표이사는 원사, 원단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았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백경목·이재만 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1월 수상자로 SK하이닉스 백경목(왼쪽 사진) 수석연구원과 이재만(오른쪽) 다윈산업 대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인 백 수석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불량률 가시화, 정량화, 수치화하는 계측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 주기를 단축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인 이 대표는 재



활용품과 폐기물이 담긴 봉투를 개봉하는 기계장치인 파봉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재활용 산업 성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네이버, 희소난치병 환우 지원 ‘무료 손글씨체’ 선포

소녀위축증 정애영 씨 손글씨로 제작...기부 캠페인

네이버는 희소난치병 환우를 응원하는 ‘꽃길, 함께 걸어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녀위축증 환우의 손글씨를 AI 기술을 통해 글꼴로 만들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무료로 선보일 계획이다.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 캠페인과 연계해, 희소난치병 지원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만들어진 글꼴은 굿액션 캠페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또 환우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면 해피빈에서 기부할 수 있는 콩 2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함께 걸어요’체(사진)는 소녀위축증을 앓고 있는 정애영 씨의 손글씨로 제작됐다. 정애영 씨의 딸 지수진 씨는 지난 한글날 열린 손글씨 공모전에서 소녀위축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노력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손글씨를 응모한 바 있다. 네이버는 지수진 씨의 사연을 보고 어머니의 손글씨를 글꼴로 제작

꽃길, 함께 걸어요



할 것을 제안, 클로바의 AI 기술을 활용해 글꼴로 구현했다. 지수진 씨는 “점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면서 상실감에 빠져 있던 엄마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힘으로 계속 써 나갈 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국내에서는 희소난치병에 대한 연구나 지원이 아직 미비한데, 어머니의 손글씨 글꼴로 희소난치병에 대한 관심과 대화가 많아질 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가톨릭대 김영균·서울대 정희순 교수 ‘유한 결핵 및 호흡기 학술상’ 받아

김영균(사진 오른쪽) 가톨릭대 내과 교수와 정희순(왼쪽) 서울의대 내과 교수가 ‘제41회 유한결핵및호흡기학술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한양행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28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석상에서 시상식을 갖고 김영균 교수와 정희순 교수에게 각각 상패, 상금 및 메달을 수여했다고 11일 밝



했다. 김 교수와 정 교수는 탁월한 연구성과로 호흡기 분야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혜은 기자 euna@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어수봉 한국기술대 교수

대통령 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1일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양극화해소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를 이끌 수장에 어수봉(사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위촉됐다. 어 위원장 외에도 노동계 위원 4명, 경영계 위원 4명, 정부 위원 3명, 공익 위원 5명, 간사 위원 1명 등이 참여한다. 양극화해소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 교수 방통위 상임위원 김창룡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왼쪽 사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창룡(오른쪽)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박수근 신임 위원장은 1957년생으로 부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연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출신 노동법 교수로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노사관



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1957년생인 김창룡 신임 상임위원은 대구 계성고와 건국대 낙농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런던시티대에서 언론학 석사를, 카디프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민일보 기자와 AP통신 서울특파원을 거쳐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방통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선거방송심의위원을 지냈다.

정일환 기자 whan@

‘담배 안 피우는 말보로 맨’ 로버트 노리스 별세

“자녀에 본 안된다” 14년 만에 중단

‘말보로’ 담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광고 ‘말보로 맨’의 주인공인 로버트 노리스가 별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노리스는 3일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망했다. 향년 90세.

노리스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담배를 손에 들거나 입에 물고 있는 이미지로 10년 넘게 말보로의 얼굴로 활약했다. 말보로 맨이 처음 광고에 등장한 것은 1955년이다.

말보로는 초창기 여성들을 겨냥한 담배



브랜드였으나 말보로 맨이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카우보이 느낌을 물씬 풍기는 남성 제품으로 변신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노리스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이 말보로 맨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자녀들에게 본이 안 된다며 14년 만에 출연을 중단하기도 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1971년 담배의 TV와 라디오 광고를 금지했다. 여전히 말보로 맨은 지면 광고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1990년대 말 완전히 중단됐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인사

- ◆보건복지부 ◇임용(책임운영기관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전문임기제) 이영문 △국립목표병원장(일반임기제) 임영재
-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중소기업정책관실 규제혁신과장 부이사관 이옥형 △창업진흥정책관실 기술창업과장 서기관 황영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

- 본부장 이성우 △해양연구본부장 남정호 △해운·물류연구본부장 윤희성 △항만연구본부장 최상희 △수산정책사업본부장 겸해외시장분석센터장 임경희 △기획조정본부장 김대영 △경영지원본부장 한창동 △혁신전략실장 박광서 △국제협력·ODA 센터장 최영석
- ◆대림그룹 ◇대림코퍼레이션 <승진> △부사장 이준우 ◇대림산업 유휴사업부 <승진> △부사장 김만중 <신규선임> △상

- 무보 양창식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신규선임> △경영지원팀 이용석, 박민용, 김운전, 우영진, 정재호 △전문임원 김정현, 최영락, 고현신, 조준환 ◇대림에너지 <승진> △상무 변준석 <신규선임> △상무보 이봉희 ◇고려개발 <승진> △전무 김주동 <신규선임> △상무보 김광덕 ◇삼호 <승진> △전무 유상만 <신규선임> △상무보 장근순 ◇GLAD <신규선임> △상무보 이주영

부음

- ▲전병순 씨 별세, 백인균(KDB생명 수석부사장·산업은행 전 부행장)·은희(대전 가오중학교 교장)·지원(대전교육청 장학사)·은경(한경대학교 강사) 씨 모친상, 오남규(대전과정보고교사)·김대근(스마트컨설팅 대표)·이재수(현대자동차 대전둔산지점장) 씨 장모상 = 10일, 대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3일 오전 9

- 시, 042-280-8181
- ▲정영숙 씨 별세, 방영광(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차장) 씨 모친상, 안재수(전 충남도 환경보호과장) 씨 장모상 = 11일,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7시, 042-220-9972
- ▲한창섭 씨 별세, 한동훈(서울경제신문 사회부 기자)·정선 씨 부친상 = 11일, 충남 청양농협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8시 30분, 041-942-4600

중국을 지금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경영연구소장

미중 무역전쟁에 맞서는 소비축제 '광군제'

올해 중국 광군제 행사는 단순히 쇼핑 축제의 개념을 넘어 중국 소비파워의 견제함을 미국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이다. 미중 양국 사이에 끼여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들을 활용해야 한다. 변화되는 중국 소비의 방향성과 트렌드를 꿰뚫는 민첩한 대응과 적극적인 시장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협상은 역시나 롤러코스트 국면이다. 중국 상무부가 "미중 양국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각종 상품에 부과한 기존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철폐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상황이 또다시 반전되는 분위기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지금 쇼핑축제로 정신이 없다. 중국 최대의 소비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 수출 및 투자 주도형 발전모델로 시작한 중국은 이제 14억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소비 주도형 발전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소비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버티면 이긴다는 이른바 '기다림의 성공학'은 중국의 막강한 소비경제가 지탱해 준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것이다. 비록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경제 하방 압력에 따라 내수 경기도 주춤하고 있지만, 소매판매 증가율은 여전히 8%대 안팎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1일은 6억 명 이상의 중국인이 물건을 산다는 중국 광군제(光棍節, 11월 11일·雙十一) 날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

건을 다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중국 광군제는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했다. 2009년 알리바바(티몰+타오바오) 하루 매출액 5400만 위안(약 89억 원)으로 시작한 광군제는 10년째인 작년 2135억 위안(약 35조5000억 원)으로 약 3000배 급성장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2위 기업인 징둥닷컴은 1598억 위안(약 26조5000억 원)으로 하루에 두 회사가 올린 매출액만 62조 원이 넘는 규모다.

광군제는 이제 중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0여 국가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글로벌 쇼핑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알리바바의 경우 당일 13억 건이 훨씬 넘는 주문 물량이 전 세계로 뿔어나간다. 미국의 거의 30일치, 영국의 5개월치 택배물량이다. 이날 하루 팔자는 중국 도심에서 수없이 지나가는 택배차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중국의 소비파워를 실감할 수 있었다. 중국 소비자의 95%는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주문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애플, 나이키, 아디다스, P&G, 유니클로 등 외국계 브랜드의 경우도 행사 시작 30분도 안 되어서 1억 위안(약 165억 원)

을 가뿐히 돌파했다. 그렇다보니 세계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11월 11일 광군제 하루를 위해 엄청난 물량을 여름부터 준비한다.

특히, 중국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2013년 기점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3차 서비스산업 비중이 2차 제조업 비중을 추월했고, 2018년 기준 3차 산업 비중이 52.2%를 차지하면서 중국 산업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중국 내 매장 수가 4000개가 넘는 미국 커피체인 스타벅스의 순이익도 2018년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고, 중국 내 아이맥스(IMAX) 영화관 역시 전년 대비 순이익이 50% 늘어났다. 변화된 중국 소비자와 소비파워의 한 단면이다.

중국을 올해 6% 경제성장을 방어할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군제 또한 그러한 소비부양 효과 차원에서 중국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듯하다. 현지 유통 플랫폼 기업과 함께 공격적 소비확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8년 하반기부터 '정보 소비 3년 행동계획(2018-2020)', '소비 메커니즘 개선촉진 방안(2018-2020)', '공급 최적화를 통한 소비의 안정적 성장

및 내수시장 육성방안(2019)' 등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소비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중국 광군제 행사는 단순히 쇼핑 축제의 개념을 넘어 중국 소비파워의 견제함을 미국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이다. 미중 양국 사이에 끼여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들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 양국을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최근 일본 기업의 중국 내 활약상이 눈부시다. 한일 간 무역마찰의 틈을 타 일본 부품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일본 화장품이 한국 상품 점유율을 빼앗아가는 등 소비재 기업들의 중국 내 매출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다. 지난 몇 년간 광군제 행사의 국가별 판매 순위를 보더라도 일본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행히 사드 사태 이후 주춤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점차 나아지는 분위기이다. 서둘러야 한다. 변화되는 중국 소비의 방향성과 트렌드를 꿰뚫는 민첩한 대응과 적극적인 시장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발언대

강인수
한국국제통상학회장



RCEP 협정문 타결이 시사하는 것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규범 도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재권 전반에 걸친 포괄적 보호 규범을 마련한 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 원활화' 기반이 마련된 것도 매우 중요하다.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RCEP 참여국 가운데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중국,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 7개의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 FTA별로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컸다. 통합 원산지 기준 설정은 이러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FTA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해도 재료 누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역내 생산가치사슬 형성이 활발해

지고,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가 RCEP 참여국들과의 기존 FTA보다 진일보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대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첫 번째는 인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우려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참여국들이 어떤 대응책을 가졌는지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치 않다. 2020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도의 참여가 불발될 경우 RCEP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공조해야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업그레이드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이다. 일본은 RCEP 참여

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이고, 최근 한국에 대한 불합리한 수출규제로 WTO 분쟁절차까지 진행 중이다. RCEP를 통한 일본과의 시장 개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 면밀히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경쟁과 협력을 할 것인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는 RCEP의 향후 진행 상황이 미·중 간 패권 다툼 양상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를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하는 '자유롭고 열려 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RCEP가 중국 중심이 아닌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농수산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남방정책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오귀스트 로댕 명언
"경험한 것을 지혜롭게 이용한다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다."

프랑스 조각가. 건물 장식으로만 생각되던 조각을 예술로 이끌어내 '근대 조각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가 추구한 웅대한 예술성과 기량은 조각에 생명과 감정을 불어넣어, 예술의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작은 '지옥의 문', '생각하는 사람' 등이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40-1917.

☆ 고사성어/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이다. 한서(漢書) 조충국전(趙充國傳)이 원전. 전한(前漢)의 선제(宣帝) 때 서북 변경 티베트계 강족(羌族)의 반란 진압이 실패로 돌아가자 황제가 후장군(後將軍) 조충국에게 토벌 방책을 물었다. 그가 한 대답에서 유래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무릇 군사란 작전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전술을 헤아리기 어려운 법이므로 바라건대 신을 금성군(金城郡: 지금의 간쑤성 난주 부근)으로 보내 주시면 현지를 살펴본 다음 방책을 아뢰겠습니다[百聞不如一見 兵難驗度 臣願親至金城 圖上方略].'

☆ 시사상식 / 파노플리 효과
파노플리(Panoplie)는 '집합(Set)'이라는 뜻. 특정 상품을 사며 같은 상품 소비자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상을 말한다. 상류층이 되고 싶거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마음이 특정 상품의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다.

☆ 유머 / 급할 때 생각 안 나는 변호
회사에 불이 나자 놀란 사장이 당황해 직원에게 소리쳤다. '박 부장, 119가 몇 번이지?'

박 부장이 무게 있게 대답했다. '사장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셔야 합니다. 114에 바로 전화해 물어보겠습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나는 죄인입니다." (영화 '소수의견')
영화 '소수의견'은 철거 현장에서 경찰을 죽인 한 남자의 재판을 둘러싼 이야기다. 사건의 구조가 간단치 않은 것이, 이 남자가 경찰을 죽인 이유가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경찰에게 맞아 죽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즉,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셈이다. 그런데 경찰은 남자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 용역이라고 맞선다. 결국 아들을 죽인 범인은 경찰임이 밝혀졌다. 경찰 수뇌부의 불법진압 지시, 검찰의 조작수사 등도 드러난다. 그런데도 피고에게는 정황을 참작한 일정량의 형량이 선고됐고, 재판이 끝난 후 주인공은 이 말을 되풀이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영화를 볼 때만 해도 별 감흥 없던 이 대

기자수첩



김나은 자본시장2부/better68@

OEM펀드의 갑과 을

사가 다시 떠오른 건 이른바 '주문자제작(OEM) 펀드'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OEM펀드' 판매 논란을 일으킨 판매사에 대해 과징금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심의를 내리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왜 운용사들만 처벌받아야 하죠? 시장에서, 법 테두리에서도 판매사(은행)는

'갑', 운용사는 '을'인데..." 자산운용업계는 금융감독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 불만을 표출한다.

이해도 간다. OEM펀드가 무엇인가.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펀드가 설정과 운용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즉 해당 펀드에 문제가 있다면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펀드 판매사가 펀드 운용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가담했음에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면 OEM펀드로 인한 투자자 관련 피해는 언제든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의 잘못과 그 중함을 가리고, 탓하려는 게 아니다. 금융당국이나 판매사, 운용사 등 모두 소비자 앞에 진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다. 양치기 소년의 학습효과처럼, 진짜 좋은 투자상품이 나와도 소비자들은 의심하고 등을 돌릴 수 있다.

문 정부, 진정한 '소통' 원한다면

집권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협치 기조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10일 집권 후반기 첫 시작을 대통령보다 만나기 힘들다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한자리에 모여 첫 기자간담회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처음으로 사적 공간인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문 대통령은 19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직접 집권 후반기의 구상을 밝힌다. 6개월 전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진행한 KBS 기자와 일대일 대담 형식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과 KBS 기자와 일대일 대담 형식에 불만을 나타내는 기자들이 많았다. 특정 언론사가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인터뷰를 진행한 점에서 과연 소통을 위한 인터뷰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논란만 일으키며 문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지지 못해 청와대가 기획한 야심 찬 소통 행보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청와대의 소통 의지를 잘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처럼 집권 후반기에 맞아 문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소통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야권에선 그동안 문 정부를 '불통 정부', '극단적인 진영 대결'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야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해 소통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청와대와 야권은 서로

데스크칼럼

신동민
정치경제부장



불통 책임만 내세우며 소통 없이 악순환만 반복했다.

집권 후반기 청와대가 밝힌 소통과 협치 기조가 잘 이뤄지려면 '나만 옳다'거나 '개혁을 위해 아쩔 수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물론 야당의 과도한 '발목잡기'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청와대와 여당이 책임을 전가하지만 이를 감수해야 소통을 이룰 수 있다. 정권 출범부터 이는 예견된 일이다.

그동안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 춘추관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농담이나 오곤 했다. 청와대 3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들이나 참모진과의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아 기자들을 춘추관에만 가둬 뒀다는 얘기가. 청와대 3실장이나 주요 수석들이 한 번씩 춘추관에서 정책 설명회를 할 때마다 첫 마디가 "전화를 받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이다. 가끔 참모들과 개인적으로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면 "회사 얘기는 하지 말자"고 전제한다. 사실 참모진과 기자들이 식사할 이유가 없어진다. 역대 정부에서 몇몇 기자들과 비공개 만남으로 정부 정책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거나 엇갈린 목소리로 올바른 정부 정책을 전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 적이 많았

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참모진이 조심스러워서 하는 점은 심본 이해는 된다. 이전 정부보다 소통이 잘 이뤄진다고 청와대는 자화자찬하지만, 과연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청와대가 정책에 대해선 참모진이 적극 나서 기자들이나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한 점은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청와대가 집권 전반기 평가에서 경제지표가 최악을 보임에도 큰 반성 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3실장이 천명한 점은 아쉽다.

자기반성 없는 소통은 결국 주장과 일방적 의견 개진에만 그칠 수밖에 없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지만 아직 기동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혁신 경제를 위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여전히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우리 사회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다는 얘기도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 지도층의 특권과 반칙, 불공정이 관행이라는 말로 성행하고 있다.

노 실장의 말대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규제 개혁 등 많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를 이루려면 먼저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국민에게 왜 실패했는지 솔직히 말하고 이해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이 아닐까.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이전에 철저한 자기반성이 먼저 이뤄져야 소통할 수 있다. lawsdm@

시설

공정위 방송·통신 결합 승인을 주목하는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를 인수합병(M&A)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을 허용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 3사 위주로 재편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의 합병을 독과점을 이유로 불허했던 것과 정반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시장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기술과 시장생태계 변화에 적시 대응토록 함으로써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경쟁제한 우려로 수신료 인상과 TV채널 변경을 제한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부과했지만,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는 시장을 반영한 전향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유료방송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케이블TV에서 IPTV로 대세가 바뀌고 있고,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OTT 시장 또한 급속도로 커졌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국내 점유율을 높여 가는 가운데, 세계 최대 콘텐츠 기업인 디즈니와 스마트폰 업체 애플의 OTT 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자칫 해외 거대 기업들에 의해 국내 OTT 시장이 장악될 위험이 크다.

이들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결합을 통한 국내 OTT의 강력한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서비스 기업의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가능하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M&A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경쟁기반을 갖추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공정위의 설명처럼 시장이 바뀌었으면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 기술발전과 서비스 융합 등 시장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낡은 잣대의 독과점 등을 적용한 과잉 규제나 경직적인 사전 규제로 경쟁을 저해하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신산업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을 통해서 가능하다.

공유경제나 핀테크, 데이터산업, 바이오헬스 등 이미 다른 나라들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 혁신을 우리만 못하고 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때문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지원은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부터 허무는 일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두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 촉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충영록의 이슈노트

산업부 차장



게임체인저 기술, 양자컴퓨터와 AI

현이 바로 양자다. 양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세히 연구하는 물리학의 분야를 양자역학이라고 부른다.

양자 컴퓨터로 돌아가 보면, 기존 컴퓨터는 0 아니면 1의 값을 갖는 비트 단위로 정보를 처리하지만 양자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될 수 있는 '큐비트(qubit)' 단위로 연산한다. 원자보다 작은 물질은 파동과 입자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양자역학의 '중첩' 현상 때문이다. 즉, 0인지 1인지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 중첩된 상태로 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산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지난달 구글은 현존하는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계산을 자사의 54 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커모어'가 200초 만에 해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아이온큐와 알리오 테크놀로지 등 두 곳의 양자 컴퓨터 개발 스타트업에 연이어 투자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 CEO 서밋 2019'에선 삼성이 투자한 아이온큐의 창립자 김정상 듀크대 교수가 참가해 양자 컴퓨터를 슈퍼 히어로에 비유했다. 기존 컴퓨터가 정

상적 사람이라면, 양자컴퓨터는 아이언맨, 슈퍼맨, 원더우먼 같은 '초능력자'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양자컴퓨터 개발은 AI를 고도화하고 인류가 풀지 못했던 난제에 접근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동안 영화에서 다뤘던 미래상보다 더 발전된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터미네이터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인류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자컴퓨터 개발은 신약 개발에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인체에 약이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기존 컴퓨터로는 계산해 낼 수 없는데, 양자컴퓨터로는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밖에 소재 개발과 관련된 대형 분자 시뮬레이션, 리스크 분석, 날씨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양자컴퓨터와 AI는 미래 IT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기술 경쟁은 결국 미래를 변화시킨다. 어릴 때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 만화의 내용이 진짜 현실화될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당장 2020년 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과연 205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syr@

자궁경부암, 30대 이상 정기검진을

'자궁경부암'은 정상 세포가 어느 날 갑자기 암 세포로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서서히 변화를 거쳐 진행된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중 일부에서 세포 변형 및 증식이 일어나게 되면 '상피내종양'이라고 불리는 전암 단계를 상당 기간 거쳐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하는데, 보통 수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검사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상피내종양이나 암 초기 단계에서 진단이 가능하다.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의 시작이 빠를수록 좋으며, 30대가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약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약 14가지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

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자궁경부암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약 2년 내에 90% 정도는 저절로 감염이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고, 2년 이상 지속적인 감염이 있는 경우 중 일부에서 자궁경부의 세포 변형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궁경부 전암 단계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예방백신도 개발돼 있다. 현재는 서바릭스2가 백신, 가다실 4가 백신, 가다실 9가 백신 등 3종이 개발돼 있는 상태다. 이 백신들은 자궁경부 전암 단계의 발생을 70~90% 예방 가능하므로 해당연령(9~25세)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한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접촉이 발생하기 이전 연령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김우영 강북삼성병원 산부인과 교수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아삭모드 | 해를 넘겨 먹는 김장김치도 오랫동안 아삭하게

김장김치를 위한 최적의 온도
 김치플러스 비스포크가 맞추다

해를 넘겨 먹는 김장김치도 초정온으로 오랫동안 아삭하게
 푸드마다 다른 신선함의 온도에서 당신의 스타일까지
 김치플러스 비스포크가 모두 맞춥니다

삼성 김치플러스 BESPOKE



찬스 1. 삼성 김치플러스 BESPOKE 보상 혜택

2020년형 BESPOKE 4도어/3도어 & 3도어 홈바 해당모델 구입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11/30)

찬스 2. 으뜸효율 김치플러스 1등급 모델 구매고객 10% 환급

행사기간 동안 해당모델을 구매하시면
 1인당 구매금액 10%(신청자별 최대 20만원)를 환급해드립니다

• 세련된 구입하신 매장별 포인트 커서백 등 상이한 형태로 제공 • 포인트는 삼성전자 멤버십 구역에 한함 • 11월 혜택으로 연속 내용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구매 매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 한국에너지공단 • 행사기간: 2019. 11. 1 ~ 12. 31 • 적용기간: 시행일 2017. 7. 1 이후 1등급 모델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http://rebate.energy.or.kr>) 또는 구매 매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보상혜택과 2. 으뜸효율 구매고객 환급 혜택은 중복 가능합니다